

RM 제2009-1-356호

논술 지도의

원리와 실제

인문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논술 지도의 우선순위와 실천 인문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연구위원

강영기(남주고등학교)
김평원(마포고등학교)
김흥규(광신고등학교)
서정인(서울고등학교)
이명수(대광고등학교)
이효근(보인고등학교)
정형식(송실고등학교)
조석연(진명여자고등학교)
최병기(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진규(서령고등학교)
황충일(서도고등학교)

자문위원

윤희원(서울대학교)
조완영(충북대학교)

연구협력관

김규환(입학전형지원실장)
김경미(입학전형지원실 선임행정원)

논술 학습 프로그램을 내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낮설게 느껴지던 통합교과논술이, 이제는, 수능시험만으로 우수 학생을 변별할 수 없는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전형의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능 성적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과 내신과 통합교과논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이 50:50의 비중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논술을 폐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편승하면서 학생들은 물론 일선 현장의 교사들도 '논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시, 수시,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가열된 논술 열풍이 식었을 뿐이지 논술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통합교과논술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 결과로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오로지 입학시험에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차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택형 문항이 대부분인 수능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갖춘 학생을 수시 전형을 통해 선발하려고 통합교과논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지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에서는 공교육이 주도하는 논술 교육만이 논술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각 대학교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하게 제시한 <논술길라잡이>를 해마다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통합교과논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 지도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통합교과논술 대비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논술 학습 프로그램>을 발간합니다. 이 책에서는 통합교과논술고사를 부과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방향을 점검하면서 정직하게 학생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시하였습니다.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기관과 현장 논술 지도 교사의 다양한 의사소통과정을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학습 자료로 거듭나고자 노력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논술길라잡이> 시리즈는 논술 문제를 출제한 대학과 고교 논술 지도 교사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신력 있는 안내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논술 지도 교사와 학생 모두 통합교과논술 교육의 의의에 공감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Contents

01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원리 접근	3
원리 이해	4
예제 확인	12
기출 연습	22
원리 적용	33

02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원리 접근	43
원리 이해	44
예제 확인	56
기출 연습	65
원리 적용	74

03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원리 접근	81
원리 이해	83
예제 확인	97
기출 연습	103
원리 적용	116

04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원리 접근	125
기출 확인	126
실전 연습	133

01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예제 확인
- 기출 연습
- 원리 적용

01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원리 접근



위 삽화는 학급 현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철수와 영수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학급회의의 주제는 소풍 장소 결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학급회의는 학급 구성원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도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급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때의 문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진술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주제다. 주제를 결정한 후에는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관련 제시문을 집필하거나 수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논술시험 출제 과정이 그렇듯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의 논술시험이든 시험지를 받으면 의도적으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원리 이해



주제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의 독해는 물론이고 논제에 맞는 답을 쓰는 데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시문을 읽다보면 알 수 있겠지 하는 정도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주제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점에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한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리 01 | 첫 번째 제시문의 내용에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어질 지문을 읽은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주제는 대개 첫 번째 제시문을 읽어보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험지를 받고 논제를 확인한 후, 제시문을 읽을 때 첫 번째 제시문에 주제가 담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부산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성**’이다. 【제시문 가】의 내용이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글 전체의 주제가 인간의 창조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누구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요리의 대가에 견줄 수 있는 사고의 달인이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재료들을 섞고 조합하여 맛을 내는 것에 도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지적’ 만찬을 준비한다면 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의 부엌’에서 그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더 잘한다는 뜻이다. 대가가 되려면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조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적 조리법은 ‘무엇을 생각(요리)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요리)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정신적 요리는 생각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개념들은 절여지고 졸여지고 살짝 튀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져지고 구워지고 휘어져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마치 요리의 대가들이 어떤 재료는 조금만 뿌리고 어떤 재료는 듬뿍 넣는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상상의 부엌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솟아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과 섞이기도 한다. 조리법 자체만 들여다보아서는 완성된 요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다. 정신적 요리의 대가들은 요리가 어떤 맛일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가상으로 재료를 혼합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맛이 나올지 직감으로 안다.

【나】 전신을 처음으로 발명한 미국인 모스는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연명하던 화가였다. 그는 유럽 여행 중에 전신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끝에 전신을 발명했는데, 그가 발명한 첫 전신은 화실에서 쓰는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르코니는 세계 최초로 무선전신을 만든 발명가이다. 그가 만든 무선전신은 유선전신의 키, 유도 코일, 모스 부호기, 리지 송신기, 코히러 수신기,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르코니가 처음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안테나 하나밖에 없었다. 모스와 마르코니의 독창성은 무에서 전신, 무선전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을 결합해서 쓸모 있는 발명품으로 바꾸었다는 것에 있다.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었던 와트의 증기기관은 광산에서 물을 펴내는 데 사용되던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개량한 것이었다. 뉴커먼 기관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최대한 뜨겁게 해야 하고, 피스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가능한 차게 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실린더를 가열해서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들어 올린 뒤에, 실린더 안에 물을 분사해서 이를 식힘으로써 피스톤을 떨어뜨리고, 이 식은 기관을 다시 가열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열의 낭비가 심했고 효율이 낮았다. 과학기제 제작자였던 와트는 이 문제를 놓고 몇 년을 씨름했다. 어떻게 증기기관의 실린더를 차갑지만 뜨겁게, 뜨겁지만 차갑게 유지할 것인가? 1767년, 와트는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 실린더에 독립된 응축기를 설치해서 실린더는 항상 덥게, 반면에 콘덴서는 항상 차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기관의 효율이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와트의 증기기관은 광산과 공장에 쓰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차와 기선에도 사용되었다. 산업시대의 서두를 연 발명품은 이렇게 ‘양립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기술에 융합함으로써’ 가능했다.

【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마찬가지로 서쪽에서도 상이한 문명과 문화의 전통에서 온 사람들이 온통 뒤섞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뒤, 알렉산더의 영토였던 아나톨리아에서 박트리아에 이르는 지역은 셀레우코스계 후계자들이 통치하였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와 페니키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인

도인과의 거래를 조정하게 되었다. 알렉산더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셀레우코스 왕조는 광대하고 국제주의적이며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나라를 다스렸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는 근본적으로 큰 문화적 함의가 있다. 특히 그리스 문화전통과 인도문명이 혼합된 박트리아와 인도 북부의 간다라 왕국에서는 다양한 문명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섞였다. 이 문화교류의 가장 큰 시각적 증거는 간다라 불교미술이다. 간다라 미술에는 지중해식 미술 및 조각 스타일의 영향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형상 대신에 보리수나무, 발자국, 비어 있는 보좌, 진리의 바퀴와 같은 적절한 상징물을 이용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주교역자 거류지를 박트리아와 간다라에 세우면서 지중해식 미술품을 가져왔고 그리스의 화가와 공예가들도 데려왔다. 그 결과 서기 1세기 무렵의 간다라 양식에는 그리스 미술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이때부터 간다라 미술가들은 부처님을 그리스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냈고, 그 부처님에게 지중해풍의 의상을 입혔다. 그 뒤 몇 세기 동안 인도의 불상은 지중해 스타일을 점차 벗어나 더욱더 인도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

한편 헬레니즘 문화 자체도 알렉산더 이후의 정치적 여건에 적응했으며 그로부터 진행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융화했다. 이 융화는 놀라운 정도로 종교적 혼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교역자, 군인, 행정가, 노예, 여행자 등이 광대한 헬레니즘 세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때 자신들의 신앙, 가치, 신념체계를 함께 가져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양한 신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숭배의 통합(예컨대 제우스와 아몬 숭배의 통합 같은 것)을 이루었으며, 때로는 천상의 위치에 앉아 모든 국가와 종족의 일들을 관장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유일신을 창조하기도 했다.

[라] 미술과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반된 것이 아니다. 미술과 과학은 자연을 포함한 우리들의 세계를 재현하고 해석하며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미술가들이 과학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자연을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기 미술가들의 탐구 의욕은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빛, 색, 인체, 거리, 움직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회화의 진정한 과학적 원칙이라 규정하고, 미술과 과학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의 원근법과 해부학에 대한 연구는 후대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동식물의 구조에 대한 연구, 물의 흐름에 대한 연구, 체인이 연결된 자전거, 자동차 공학 분야의 선구적 연구, 이상도시에 대한 설계 등은 후대의 많은 미술가와 과학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19세기 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원자론이나 분자론이 제시하는 물리학적 세계관을



그림 1
비트루비우스의 이론에 따른 인체비례(레오나르도 다 빈치 1490년 경)

원색의 점으로 표현하였다. 과학이론을 광선이나 색으로 옮겨 세계를 재현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편 20세기 초에 미래파 화가들도 전통적인 미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속도의 미를 주장하고, 기계의 역동성과 소리 등을 찬양하며, 움직임이 심한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 등의 소재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술에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미술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단편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정교하게 자동 제어되는 기계, X선이나 현미경을 통한 미시적 시각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비디오, 컴퓨터, 레이저 등을 활용한 최첨단 과학의 기술과 이론,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원리 등을 활용한 미술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다. 그 결과, 키네틱 아트, 옵 아트,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미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전자 공학의 발달은 미술 표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림 2
TV첼로 (백남준, 1971년)

원리 02 | 제시문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낸다.

한 편의 글에는 필자의 생각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글에 담긴 필자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일 수는 없다. 특정 부분에 필자의 생각을 담은 핵심어를 배치할 수 있고, 또 필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드러낼 수 있다. 논리적인 글은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은 글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은 주제는 '임금 격차'이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제시문에서 ㉠은 핵심어, ㉡은 중심 문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핵심어와 중심 문장만 확인할 수 있어도 제시문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핵심 주제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1】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줄기는 했어도, 고용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에 비해서 훨씬 낮다. 1970년에 전일제로 일하는 남성 임금이 1파운드라면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은 63펜스의 임금을 받았다. 1999년에 그것은

84펜스로 높아졌다. 이처럼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은 당연히 남성과의 평등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보인다.

여러 과정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임금이 높은 전문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제 능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남성과 비슷해졌다. 그러나 직업구조의 상층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발전은 빠르게 확대되는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시간제 근로 여성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구조에 따른 성별 직업분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은 임금이 낮은 직종 부문에 과잉 분포되어 있다. 남성의 20%가 주당 100파운드 이하를 버는 것에 비교하여, 여성의 45%가 주당 100파운드 이하를 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성들이 소득 분포에서 상위에서 제대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2%만이 주당 500파운드를 버는 데 비하여, 남성의 10%가 주당 500파운드를 벌고 있다.

[제시문 2]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에 비해 그 크기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과 직종(職種)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세 가지 부분, 즉 고용분포의 차이에 의한 고용차별, 임금계수의 차이에 의한 임금차별, 생산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성별 임금격차는 산업과 직종에서 0.52의 수치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차별적 요소를 비교해 보면 산업(3.6%)보다는 직종(6.0%)에서 차별적 요소가 심하게 나타났고, 특히 임금계수에 의한 차별적 요소는 산업(2.4%)보다 직종(5.2%)에서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셋째, 산업과 직종 모두에서 고용비중과 임금계수의 차별적 요소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 임금격차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기타 요인들 중에는 교육, 경력, 근속기간과 같은 생산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녀간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3]

여성의 자격은 가정내에서 여성의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고수되어 온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등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관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의 수준에서는 누구라도 인류의 반을 수입 좋은 수많은 직업과 높은 지위로부터 배제하는 것의 불공정함을 인정할 것이다.

㉢『①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가장 어리석고 비열한 남성에게조차도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직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도 적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②또한 여성이 얼마나 적합하든간에, 남성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직업들은 여성에게 금지된 것이다.』

무엇이 여성에게 금지될 때, 여성은 그것을 할 수 없고 여성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주장했던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평균치의 여성이 지적으로 평균치의 남성보다 못하다든가, 남성보다는 적은 수의 여성이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적합하다든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여성도 그러한 직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가장 뛰어난 여성이 현재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장 평범한 남성보다도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다 현재의 경험을 덧붙인다면, 여성을 가장 철저하게 경시하는 사람조차도 소수만이 아닌 다수의 여성이 남성이 해온 일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믿음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증명해왔다는 것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여성이 지적 활동을 위해 남성과 경쟁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사회에 대한 피해임을 충분히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증명하지 않는가?

[제시문 4]

미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학생들이 16세 이상이 되면 학업을 그만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도 있지만, 어떤 주는 17세인 경우도 있고, 18세인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 연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왔다. 각 주의 이러한 의무교육 연령 차이와 이 연령의 시간적 변화로 인해 학자들은 의무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 노동경제학자 앤그리스트와 크루거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교육과 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를 오래 다니도록 의무화된 학생들은 실제로 나중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교 교육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실제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남녀간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두 성별간의 학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남녀간의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리 03 | 제시문 간의 화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파악한다.

주제가 직접 드러나 있는 제시문도 있지만 주제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화제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제시문에서 핵심적인 화제를 추출한 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은 주제는 **‘사랑과 결혼’**이다. 【제시문 가】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제시문 나】는 사랑이라는 본성과 결혼이라는 제도의 불일치를, 【제시문 다】는 결혼이라는 행위에 담긴 현실적 이해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세 제시문 모두 ‘사랑과 결혼’이라는 상위 개념에 속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에 대해 전폭적인 관여를 요구한다. 남녀관계는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족한 것을 다른 이성과의 관계로 보완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때문에 남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위상을 갖는다. ‘사랑에 빠진다’거나,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은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혀 그 황홀함 때문에 이성(理性)을 잃는다는 뜻이리라. 그것이 또 순수한 애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만큼 사랑은 저절로 빠져드는 감정과 동일시된다. 낭만적 사랑, 다시 말해 에로스적인 사랑은 부모님과 사랑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독특한 경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그래서 젊은이로서 연인이 없으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끈을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결핍감을 느끼기가 일쑤다. 또 낭만적 사랑은 독특한 어떤 힘을 갖는다. 즉, 그 사랑이 일상의 얼룩들을 말끔히 닦아주고 삶의 모든 것을 총만케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믿음이다.

【나】 진화심리학자들은 언어에서 짝짓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진화론으로 풀이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까닭은 여성미가 다산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번식력과 종족보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아름다움은 생존경쟁에서 이기려는 여성 자신을 위해 진화됐다. 반면에 여자들은 생김새에 더 너그러울 수 있다. 늙어 보이는 남성은 나이 들어 보이는 여성과 달리 번식력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다양하고 많은 파트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짝과 관계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잘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 여성으로서는 고귀한 ‘유전자 기계’인 아이를 제조하는 데 같이 참여할 남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생각’은 자연 선택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여성은 그녀의 유전자 사업에 유익한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남성들은 결혼—출산—육아라는 장기간의 사업을 같이 할 시점

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유전자를 잘 키울 수 있는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게 된다.

결국 암수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수컷을 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든 반면, 암컷은 비교적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진화생물학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왜 성적 관계에 있어 남성이 보다 적극적이고 여성은 신중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 배우자 선택 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육 동질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동질혼의 증가는 부부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변하는 정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결혼이 계층화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 동질혼의 변화추세는 각 교육 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인구 크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동질혼이 강화되는 것은 남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완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동질혼의 경향은 학력수준에서 양 극단 즉, 대졸과 초졸 이하의 학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각 학력별로 남편과 아내의 동질혼의 경향은 달랐는데, 남성은 초등학교 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대졸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계층 동질혼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학연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는 행위 양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예제 확인

 다음은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인문계)에 나온 논술시험의 일부이다. 단일 문항으로 180분 동안 2,500자 내외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제시문 가]

분업이 이루어지면 노동의 생산력이 크게 증진된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이 늘어서 최하층 계급에까지 부가 확산될 수 있다.

자신이 노동하여 얻은 생산물만으로는 인간의 수많은 욕망 중 극히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때 단순히 남의 박애심(博愛心)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애심(自愛心)을 유발시키는 편이 한결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겠다."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자기의 노동생산물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잉여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충족된다.

분업의 발생은 교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장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에서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부분과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들 모두에게 그 상품이 공급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는 다소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일시적으로 상품의 자연적 가치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한편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치 전체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파는 것만으로는 상품을 다 팔 수 없으며, 일정 부분은 상품 가치보다 덜 지불하려 하는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일시적으로 자연적 가격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와 일치하는 경우 시장가격은 자연적 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공급자들은 수중에 있는 상품 전부를 이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더 비싼 값을 받을 길은 없다. 한편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을 자연적으로 유효수요에 일치 시킨다.

상품이 지닌 가치의 보편적 척도는 노동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은 사람들이 언제 어

디서나 여러 상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상품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거래에서는 화폐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는 화폐가 모든 상품의 진정한 교환가치의 척도이다.

[제시문 나]

[1]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성립되고 나서 곧바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이하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경제가 과연 경제학적 합리성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자유주의 입장에 선 그룹과 사회주의 입장에 선 그룹 사이에 오고 갔던 일련의 논쟁이었다.

가장 핵심적 쟁점은 경쟁적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 1920년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논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폰 미제스였다. 그는 생산수단이 공유화되면 생산재를 교환할 시장이 없어지므로 생산재 가격이 수급균형 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자원 배분이 자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에 사회주의 경제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입장에 섰던 경제학자들은 중앙계획당국이 시장경제의 일반 균형론 체계를 원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감으로써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폰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예크는 1935년에 펴낸 『집산주의 계획경제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그때까지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그는 두 주장을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이론적 성립 가능성이라는 논점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입장에 선 그룹의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막대한 양의 통계 자료와 연립방정식이 필요하며, 이것을 푸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오스카 랑에는 분권적 사회주의 모델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랑에는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대신 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적절히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균형가격 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한 동유럽 여러 나라 중에 헝가리는 자영농민을 비롯한 소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소련에서는 1960년대에 시장 거래를 본뜬 이윤 개념을 도입하였다.

[2] 일반적으로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원시경제에 대한 인

류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거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화폐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야프(Yap)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결혼 송낙을 얻기 위한 지참금으로 커다란 돌 바퀴를 화폐로 사용해 왔다. 야프는 미국의 영토이므로 식료품 가게나 주유소에서는 달러가 통용된다. 그러나 돌 화폐는 이 섬의 전통의상인 풀로 만든 치마처럼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돌 화폐에는 하나하나 고유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에 따라 각각의 가치가 다르다. 더구나 증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돌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돌 화폐의 가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수단으로서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돌 화폐는 작은 것일지라도 직경이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며 큰 것은 2미터를 넘기 때문에 도저히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곳의 관습에 의하면 깨진 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을 옮기지 않고 일정한 장소 ‘돌 화폐 은행’에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다. 이 섬 안에는 6,600여 개의 돌 바퀴가 있다.

[3] 서양의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봉신(封臣)이 주군(主君)에게 군사적 의무와 충성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군은 봉신에게 영지(領地)를 하사했다. 봉건사회에서 지방의 제후(諸侯)는 자신의 주군인 국왕이나 더 높은 귀족에게는 봉신의 의무를 다했지만, 자신이 거느린 봉신이나 농민들에 대해서는 주군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주군이라 할지라도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갖는 재판권이나 징세권(徵稅權)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었다. 장원제도는 봉건제도의 경제적 측면을 말한다. 중세의 농업 경제는 장원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의 저택과 교회, 그리고 농민의 집 등이 있었으며, 토지는 경작지·목초지·삼림·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장원은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장원의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 토지는 서로 경계가 없이 섞여 있었다. 영주 직영지는 농민들이 경작했으며, 장원 전체 면적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차지했다. 장원에 사는 농민들은 토지를 받는 대가로 영주에게 공물을 제공해야 했다. 그 대신 영주는 무력을 사용하여 농민들을 지켜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 재산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노였다. 그들은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토지와 가옥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농노는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재판권·징세권 등을 가진 영주의 인신적(人身的) 지배를 받았다.

[4] 1953년 일본의 야마기시 미요즈가 제창한 공동체 운동을 야마기시즘이라고 부른

다. 야마기시즘이 꿈꾸는 공동체는 한마디로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마을’이다. 1958년 일본에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브라질,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세계 각국에 40여 개가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환경 친화적 농법으로 먹거리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에는 1984년에 최초로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생겼다. 이 마을의 홈페이지에는 “모든 생활과 경영을 일체 생활, 일체 경영, 일체 사회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양계장이나 공동체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태만을 본 오해이고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급료나 분배가 없는 일체 생활 속에서 사이좋게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희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밝고 평화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염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마을은 무엇보다 무소유(無所有)를 삶의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 무소유는 공동소유와 다르다. 이들은 마을의 재산도 주민들의 공동소유물로 보지 않을 정도로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과 공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할 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마을 공동체의 무소유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이며, 필요한 물건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물건을 필요로 할 때에도 물론 무료로 공급해준다.

제시문은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제시문은 4개의 소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전체의 주제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시문 가】는 분업, 욕망, 교환, 시장, 화폐 가격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1]사회주의 경제 체제 [2]화폐 공존체제 [3]중세 경제 체제 [4] ‘야마기시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제시문에 분업·욕망 등이 차례대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치 빠른 학생이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제시문 나】의 [1]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주제가 ‘경제 체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처럼 주제를 미리 아는 것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모든 제시문은 커다란 하나의 테두리(주제) 내에서 비슷하거나 또는 상대적인 관점의 이야기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것은 제시문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08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2학기 모집 논술고사(인문계)의 제시문이다. 수험생들은 세 문항을 180분 동안 작성해야 한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A] 문화를 보는 관점은 초기에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진화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도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을 거치면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의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수렵·채집의 문화로부터 농경 문화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서구적인 산업 문화로 점차 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문화는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문화 진화론에는 서양의 문화가 고립된 부족의 문화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서양 이외의 삶은 불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서구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해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자기의 문화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라고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다른 문화는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변형으로 문화 사대주의(文化事大主義)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질이 낮다고 평가하고 다른 문화를 동경하고 추종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후진국이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많이 발견된다.

체계론에서는 문화가 하나의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문화의 틀과 속성을 유지하며, 부분적인 조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변동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론에서 보면 문화는 우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과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체계론은 문화 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와 상통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제(洞祭)는 신앙의 한 형태로써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불교나 이슬람의 예배 절차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B]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윤리는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가? 윤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윤리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서로 달라서 보편 타당한 규범과 가치관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윤리의 보편 타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상대론적 윤리설(윤리적 상대주의)'이라 하고, 그 반대의 입장을 '절대론적 윤리설(윤리적 절대주의)'이라 한다.

같은 바람도 몸이 찬 노인에게는 서늘하게 느껴지고 몸이 더운 어린이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바람의 시원한 정도는 몸의 상태에 관련하여 상대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 규범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에서만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상대론적 윤리설이다.

반면에 절대론적 윤리설은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가 인생의 목적 또는 행동의 법칙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윤리의 본질적인 기능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 손이 앞으로 묶여 있다고 하자. 이들 모두는 등이 지독하게 가려운 증세를 보인다. 천당에 있는 사람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이들이 채택한 규칙의 차이 때문이다. 지옥에 간 이기주의자들은 서로 돕지 않고 자기 일만 챙기는 것을 삶의 규칙으로 채택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등을 긁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되풀이할 뿐 천당에서처럼 동그랗게 앉아 서로 앞 사람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려 하지 않는다. 이 두 종류의 규칙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규칙일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타주의 규칙이 타당한 규칙일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유사한 욕구와 필요를 가졌고 이 욕구와 필요를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윤리 규범을 타당한 윤리 규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이다.

한편, 상대론적 윤리설은 문화적 다양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뉴기니의 도부족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허용한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누엘족은 기형아가 출산되면 하마가 살고 있는 강물에 던지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멜라네시아의 어느 부족은 친절과 정직함을 악덕으로 본다고 한다. 이런 예들은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용기, 절제, 충성, 효 등의 덕목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찬양되는 공유 가치이나, 이 가치들 사이의 서열과 해석은 서로 다르다. 용기 있게 적과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집에 남아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느냐 식의 딜레마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 이인택, 「절대적으로 보편 타당한 윤리는 있는가」에서(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C] 격세유전(atavisme).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모양도 좋고 음악적이고 발음하기 쉽고 듣기도 좋고 괴상하지 않으면서 기이하며 유식한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서 과학적이다. 이 이름은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연구한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휴고 데 브리스(Hugo De Vries)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어간 atavi(4대 조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제유(提喻)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4대 조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조상들을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격세유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념 덕분에 하마터면 우리들의 직접적인 부모가 우리를 마치 판에 박은 듯이 찍어서 만들어놓을 우려가 있는 유전적인 덩어리가 엄청난—그러나 무한하다고는 할 수 없는—수의 작은 조각들로 분쇄되기 때문이다. 격세유전에 의해 유전은 더 이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마치 토목 공사장의 인부들이 줄을 서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 운반하는 벽돌장처럼—옮겨지는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인 성취를 구성하기 위해 골라 가지는 먼지처럼 많은 별들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로로 난 줄무늬 때문에 새끼 돼지는 아비 돼지와 어미 돼지를 우습게 여긴다. 그는 자신이 어쩌면 옛날 천 년 전 갈리아 숲 속에서 살았을 멧돼지와 더 가깝다고 확신하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그는 나름대로 자유를 구가한다.

격세유전은 영양생식의 반대다. 어떤 식림가(植林家)들은 나무의 씨앗을 심는 것보다는 꺾꽂이에 의존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내어 땅에 묻으면 뿌리가 내리면서 그 자체가 나무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같은 나무일까, 아니면 다른 나무일까? 그것은 나이로 보면 다른 나무다. 그 나무는 더 어려서 그에게 생명을 준 나무가 늙어 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같은 나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 순전히 꺾꽂이로만 이루어진 숲이 있다면 그 숲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유전적 단조로움을 지니게 되어 질병, 기생식물, 퇴화, 기상이변 등 외부적 공격에 대하여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공격에 대한 생명의 가장 훌륭한 방어는 그 생명이 구현된 개체들의 무한한 다양성이다. 유럽 삼림의 유전적 빈약함은,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 개탄해 마지 않는 저 치유할 길 없는 쇠약증세의 경우에 있어서, 필경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식물의 꺾꽂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에 의한 동물 복제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한 인간 복제가 내일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사내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되어 그 아이들은 그들의 정확한 복사판이 될 것이다. (중략) 복제인간들의 사회는 꺾꽂이로 이루어진 삼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극도로 허약한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이 전염병, 혹은 그를 마약 중독이나 자살로 몰아넣는 어떤 정신적 위기로 인해 쓰러진다면 그 피해자는 오직 그 개인뿐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 개인의 복제에 불과한 집단이라면 한 번의 치명적 타격으로 모든 인간이 다 제거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온갖 질병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 치명적인 세균들에 저항력을 가진 충분한 수의 개인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 미셸 투르니에, 김화영 옮김, 『예찬』에서

[D] 다음은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epan과 Robertson이 이슬람 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표 1>은 47개 이슬람권 나라(이 중 아랍권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 비아랍권은 말레이시아 등 31개국)를 대상으로 삼아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고, <표 2>는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권까지 포함시키되,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1인당 GDP 1,500달러 미만인 나라(이슬람권 16개국, 비이슬람권 22개국)로 분석 대상을 한정시켜 각 그룹 별로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자료: *Journal of Democracy*, 2003)

<표 1> 이슬람권 나라 중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

아랍권	비아랍권
16개국 중 1개국 (6%)	31개국 중 12개국 (39%)

<표 2> 1인당 GDP 1,500달러 미만(1996년 기준)의 나라 중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

이슬람권		비이슬람권	
16개국 중 5개국 (31%)		22개국 중 7개국 (32%)	
아랍권	비아랍권	기독교 국가	기타
1개국 중 0개국 (0%)	15개국 중 5개국 (33%)	10개국 중 3개국 (30%)	12개국 중 4개국 (33%)

※ 두 표에서 민주화가 양호한지 여부는 Polity IV 및 Freedom House 지수를 근거로 1973-2001년의 기간에 대해 평가한 것임.

[E] 사나운 야수를 끊임없이 만난다는 위험과 공포에 쫓 직면하고 있는 이 20일간을 마치면 산간에 다수의 작은 촌락이 산재하는 지방에 이른다. 이 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결혼 풍습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녀를 아내로 맞지 않는다. 다수의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 사내를 한 사람도 모르는 여자는 신들의 혐기(嫌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사내들은 이러한 여자를 기피한다. 바꿔 말하면 만약 여자가 모든 우상에 게서 사랑을 받을 정도라면 사내들은 이 여자를 쫓아가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고 간주한다. 이것이 이 고장 주민이 갖는 결혼에 대한 풍습이다.

외지에서 찾아온 낯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장에서 천막을 치고 숙박할라치면 거리에서나 마을에서나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저마다 자기 딸을 데리고 20명에서 40명이나 되는 집단을 이루어 천막을 찾아와서 자기 딸들을 이들 타관 사람에게 권한다. 나그네들은 이 처녀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 함께 잘 수도 있다. 타향사람들은 처녀를 텐트에 유숙시켜 마음 가는 대로 언제까지나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여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야영 장소는 늘 갈아야만 한다.

나그네가 처녀들과 즐긴 뒤 그 고장을 출발하려 하면 자기와 같이 잔 처녀에게 보석이나 그 밖의 기념품을 주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처녀들이 나중에 결혼할 단계에 이르러 전에 애인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처녀들은 이러한 수단으로 이 기념품을 20개 이상은 손에 넣어야 한다. 그녀들은 이 기념품을 손에 넣으면 곧 이것을 목 둘레에 드리워 자기에게는 수많은 애인이 있어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같이 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기념품을 가장 많이 입수한 여자, 즉 가장 많은 애인을 갖고 가장 많은 사내들과 잔 일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처녀는 누구보다도 존중되며, 그 고장 남자는 이런 처녀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며, 그녀야말로 여러 신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여자라고 선전한다. 이들 처녀가 만약 나그네의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에는 그녀를 아내로 삼은 사내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같은 대우로 양육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엄중히 감시한다. 남의 아내에 손대는 것은 발칙한 행위라고 믿어지고 있어 누구나 조심해서 이것을 피한다.

-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서



카렌족(Karen)
미얀마 및 태국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 여인들이 목에 링을 걸고 다니며 링의 수와 종류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F】태국의 고산족 중에서 카렌족과 이수족, 타이아이족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태국 북부 지방에 살고 있는 고산족의 대부분이 태국 원주민이 아니라 라오스나 미얀마, 중국 등지에서 피난 온 난민이라는 데 있다. 이들이 고국을 버리고 태국으로 넘어와 사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유까지 다양하다.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태국이 받아들여 일정한 거주지를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살 수는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자기가 사는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들은 태국 정부의 관광 정책에 의존하여 그 부족의 여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관광객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카렌족 중에는 여성들의 목이 긴 부족이 있다. 이 부족의 여인들은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금빛으로 된 굴렁쇠를 감고 산다. 해가 가면서 하나씩 개수를 늘려간다고 하는데, 한 나이 많은 여자는 26개를 하고 있었다. 일정한 굵기의 굴렁쇠를 목에 감고 있으니, 목이 가늘어지면서 길게 늘어났다. 얼마만큼 많은 개수를 하고, 얼마만큼 목이 늘어났느냐가 미의 표준이라고 한다. 목은 길게 늘어날지 모르지만, 일정한 굵기의 굴렁쇠로 목을 고정시키고 있으니, 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들의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여인들 중에 그림엽서에 소개된 이를 만날 수 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렌족 여성들은 다섯 살이 되면 목에 굴렁쇠를 끼기 시작한다.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섯 살에 굴렁쇠를 껴두고 하더라도 2년 후인 일곱 살이 되면 다시 한 번 의사를 물어 계속 길지 안 길지 기회를 준다고 한다. 그 여인보고 왜 굴렁쇠를 하겠다고 선택했

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머리를 장식하고 목에 번쩍거리는 금붙이가 멋있어 보여서”라고 대답했다. 목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익숙해져서 괜찮다. 오히려 편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할 수 있었고, 전율이 왔다. 익숙해져서 괜찮다? 그러나 이들은 목에 굴렁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으니, 진정 무엇이 편한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막상 이 굴렁쇠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폐해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걸 끼도록 만든 사람들은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중에 바람을 피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남편이나 가족이 목에서 굴렁쇠를 벗겨내는 벌을 주었기 때문이다. 굴렁쇠를 낀 여인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받침대 역할을 하던 굴렁쇠를 벗기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고 심지어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어느 네티즌의 여행기에서

【제시문 A】부터 【제시문 F】까지 여섯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A】는 문화 진화론 및 체계론과 연계하여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제시문 B】는 윤리에 대한 절대론적 관점과 상대론적 관점을, 【제시문 C】는 ‘격세유전’을 통해 종(種)을 구성하는 개체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D】는 개별 문화(이슬람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E】와 【제시문 F】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로 【제시문 E】는 티베트 지역에 속한 어느 고장의 독특한 결혼 풍속을, 【제시문 F】는 동남아시아 카렌족의 독특한 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와같은 여섯 개의 제시문을 통괄하는 주제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출 연습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고사 문항 가운데 제시문만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서술하시오.

1. 2007학년도 서울대 2학기 수시 논술고사(인문계)

[제시문 가]

여름 4월에 왕자(王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에서 유람하고 있는데,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가 길을 나섰다가 마주쳐서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오. 북국(北國) 신왕(神王)^①의 아드님이시지요?”
그러고는 함께 돌아가서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뒤에 호동이 귀국해서는 사람을 시켜 최리의 딸에게 물려 전갈했다.

“만약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고각(鼓角)을 부숴버리면 내가 혼인의 예(禮)를 갖추어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소.”

예전부터 낙랑에는 적병이 올 때마다 스스로 소리를 내는 고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도록 시킨 것이다. 이에 최리의 딸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무기고 안에 몰래 들어가 고각을 부수어 버리고 호동에게 알려주었다. 호동은 왕에게 권해 낙랑을 기습하게 했다. 최리는 고각이 울리지 않으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구려 군대가 성 아래까지 엄습해 온 다음에야 고각이 부수어진 것을 알고,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왕이 낙랑을 멸망시키고자 청혼하여 그 딸을 호동의 처로 삼아 데려 왔다가, 뒤에 낙랑에 돌아가서 고각을 부수도록 시켰다고 한다.)

같은 해 겨울 11월에 왕자 호동이 자살했다. 호동은 왕의 차비(次妃)인 갈사왕(曷思王) 손녀의 소생이다. 아주 잘생겨서 왕이 매우 사랑하고, 그래서 이름을 호동이라 했다. 원비(元妃)는 왕이 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아 호동을 태자로 삼을까 염려해 왕에게 참소(讒訴)했다.

“호동이 저를 예(禮)로 대하지 않으니, 왕실을 어지럽히려 하고 할지 모릅니다.”

왕이 말했다.

“당신은 남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는 것 아니요?”

원비는 왕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장차 화(禍)가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

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했다.

“대왕께서는 은밀하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에 대왕은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장차 죄를 주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 스스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가?”

호동이 대답했다.

“내가 밝히면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대왕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니,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칼에 얹어져 죽었다.

[제시문 나]

(나 김부식은) 논(論)하여 말한다. 이 대목에서 왕이 참언(讒言)을 믿어 죄가 없음에도 사랑하던 아들을 죽였으므로 그 어질지 못함은 논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호동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쩌서 그러한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책망을 받을 때는 마땅히 순(舜) 임금의 아버지 고수(高수)에게 하듯^② 해야 한다. 작은 매는 맞되 큰 매는 달아나 아버지를 불의(不義)에 빠뜨리지 않게 해야 하는 법인데, 호동은 큰 매를 피해야 함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죽지 말아야 할 곳에서 죽었다. 이는 소절(小節)에 집착하다가 대의(大義)에 어둡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① 북국(北國) 신왕(神王) : 고구려 제3대 왕 대무신왕(大武神王)

② 순(舜) 임금이 아버지 고수(高수)에게 하듯 : 순의 아버지 고수와 계모는 순을 학대했다. 고수는 순을 매일같이 때렸는데, 순은 참고 맞다가 큰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갔다. 그것은 큰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 아버지에게 불효가 될까 해서였다고 한다.

2. 2007학년도 고려대 통합논술 모의고사(인문계)

[가] 생태계의 서비스는 거의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점은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에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은 희소한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때 공짜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생태계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생태계 자산은 물이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다이아몬드가 갖는 희소성마저 갖기 시작했다. 즉 생태계 자산이 점차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되면서 경제적 측면의 잠재적 가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자산이라는 가정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생태계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연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지정되면 새로운 주인들—이들은 일반 시민들, 공동체, 기업, 이해집단, 혹은 정부가 될 수 있다—은 그 소유권의 가치가 감소되는 위험에 직면할 때에 자산 보호를 위해 투쟁하게 될 것이다. 자연자본과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장 탁월한 사례가 바로 ‘탄소권’—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를 안정시키는 삼림의 능력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다. 탄소권이 확립되고 이러한 삼림 생태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국제 시장이 발전될 때에 자연 자원은 ‘시장 가치’ 혹은 가격을 지니게 되어 우리의 환경은 보호될 것이다.

[나]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으로 전력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순이익 면에서 반드시 흑자를 안겨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프랑스의 리옹 대학의 교수들과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디오게네스 학파는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60%를 생산하는 핵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발전소와 재처리 설비의 건설 및 작동 비용, 분배 네트워크, 연료, 시설 유지 및 보수, 연구와 교육 기관에 대한 고정 비용 등을 계산했다. 그 결과 향후 20년 동안은 핵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핵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핵폐기물 처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핵 시대의 초창기에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핵폐기물을 적절한 장소에 완벽하게 관리하고 격리하는 방안을 걱정해야 한다. 어디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것인가? 미국의 에너지성은 일부 지역을 선정했으나 이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에너지성 관리들에게 시설의 안전 보장에 대해 물었을 때, 관리들은 100년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십만 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이 유보되었고 일부 완성된 발전소들의 작동도 인가되지 않았다.

[다] 맬서스 시대 이래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그러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들 간의 중요한 차이가 기술이고, 기술은 항상 지구의 모화수준을 확장시켜 왔다. 만약 하나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더 좋은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 석탄이 부족하면 석유가 대체할 것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에너지는 핵분열 원자로에 의해 공급될 것이다. 만약 핵분열 원자로가 너무 위험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때 인간은 안전한 핵분열 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신과학주의자》의 편집자였던 해밀턴은 합리성이 자연환경을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 어왔으며,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에 충분히 투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기술은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힘을 부여한다. 그 길에는 기술의 장벽이 거의 없다. 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겐 사실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벽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1967년 미래학자 칸과 비너는 경제개발을 위한 능력, 환경에 대한 통제,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혁신 역량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972년 매독스는 “우주선 ‘지구’에서 자원의 절대적인 물리적 고갈 가능성은 분명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막대한 자원의 발견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고쳐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에 있다. 베커만은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자연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간 이성이며, 인간 이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확장한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합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자원으로 바꾼다. 석유는 인간이 그것을 추출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땅 속의 끈적거리는 액체에 지나지 않았다. 베커만은 구리가 3% 이상 함유되지 않아 비경제적이라고 포기한 1880년의 원광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다. 지금은 0.3%의 구리 함량을 가진 원광도 경제적으로 정련될 수 있다. 필요할 때면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전 자원의 대체물도 개발되어 왔다. 자원이 고갈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대체물을 발견할 것이다.

사이먼은 “천연자원은 정말 무한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질문에 “그렇다”고 크게 대답한다. 풍요를 일구기 위해 지구를 고쳐 만들 수 있다.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카리브해의 심해를 가열하기 위해 핵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핵에너지에 의한 심해수의 가열은 인 성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플랑크톤 양도 증가한다. 그 결과 카리브해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것은 천연자원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부족과 퇴행적이고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세에 처한 합리성이다.

[라]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정책 시행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양적 경제성장과 대규모 무역흑자라는 긍정적 현상의 이면에는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막화 등 환경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사막화로 인한 황사 등 중국의 환경문제는 자국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적은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다자간 환경 협력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2002년 2월에는 공동협력 프로그램인 TEMM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조림사업을 포함한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일차적 과제는 피해예측과 비용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의 축적이다. 한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황사 농도는 몽골과 중국에 걸친 사막지역의 넓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막지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0.1%씩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도정밀 산업의 발달과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황사의 농도가 2배 증가할 때마다 황사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는 8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 온실가스는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의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 혹은 억제하여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특히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연평균 0.5%씩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연평균 0.3~0.6도씩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2030년경에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배 정도에 이르러 지구 평균 기온이 1.5~4.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0.6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온난화의 진행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화석연료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 화학적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어떤 방안은 이미 시도되어 화려한 성공을 거둔 바 있고, 아직 실험중인 것도 있

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포식 동물과 기생 곤충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삼림위생학'을 발전시켰다. 숲속의 자연 생태계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삼림학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화학살충제 사용은 기껏해야 임시변통 정도일 뿐 진정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숲 속 개울가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죽이고, 모든 곤충에게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며, 자연의 기능을 파괴할 뿐이다.

새롭고 상상력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 그 생명체들 간의 밀고 밀리는 관계, 즉 전진과 후퇴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 곤충과 인간 사이에 납들할 만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태계는 한편으로 너무나 연약해 쉽게 파괴되고, 다른 한편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 온다. 아무런 고결한 목적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 한 화학방제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자연의 위대한 능력을 계속 무시해 왔다.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생겨난 오만한 표현으로,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화학살충제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실행 방식은 마치 우리가 과학의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원시적인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가공할만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문제 해결

 3. 2008학년도 한양대 논술 모의고사

[가] 보스니아와 르완다 등지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할 때처럼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우리는 그들을 짐승 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한 행동이 인간의 고상한 도덕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악마와 천사 사이에 머물고 있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두 친척 동물인 침팬지와 보노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침팬지는 폭력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동물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반면 영장류 세계의 히피족이라 할 수 있는 보노보는 전쟁이 아니라 섹스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유인원은 인간과의 유전적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금까지 언론 매체나 문헌에서는 우리와 침팬지를 비교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노보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노보 사회가 보여주는 암컷의 지배 협력적인 성격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섹스의 사용 등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이론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의 공격성을 발전과 동일시하고 우리의 친척인 침팬지의 행동에서 폭력성의 뿌리를 찾으려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한다는 이미지를 널리 유행시켰다 이 메시지는 레이건과 대처가 미국과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 탐욕을 자유 시장제도의 기초로 여기던 시대정신과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엔론 사태와 그 밖의 기업들의 부정 사례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도덕적 책임과 공동체를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생물학계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의 기초는 강자의 권리에서 도덕성과 책임감의 진화 쪽으로 급격히 쏠려 왔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본성과 조상에 관해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에 아주 적절한 때로 보인다. 이 그림은 침팬지와 보노보 모두를 우리의 본성으로 수용하려 한다.

[나]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 대한 대안으로 뢰 펠리(Luc Ferry)는 민주생태학(democratic ecology)을 제안 한다 이는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자연은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며 인간을 위한도구도 아니다 자연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최우선 임무는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개발

하더라도 그것을 무한정 소비할 정도로 지성이 부족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관심은 자연적 삶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을 남용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는 환경론적으로 의식화된 소비자를 길러냄으로써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페리의 자유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한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내 놓는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한가 혹은 악한가라는 질문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본래적으로 인간은 선하며 동시에 악하기도 하다 동물의 본성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우호적이며 때로는 해를 끼친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으로써 극도로 선하거나 극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페리는 고문도구를 전시한 벨기에의 박물관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저토록 괴롭힐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계획적으로 고안해낸 종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동물이 저지르는 악행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자연이나 선과 같은 자신의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직하는 존재이다. 이런 조직의 결과가 바로 역사이다 인류의 역사가 때로는 훌륭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한데 이는 모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인간은 본래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역사를 만들며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운 선택을 했던 인간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는 이유인 것이다.

[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 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의의는 선진국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에 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년부터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대비 평균 감축해야 한 2008 5 1990 5.2%다 이에 선진국들은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 올리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

다. 2001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미국도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재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여 시장에서 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반대로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들은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유인도 커진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EU,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 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현재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으로 약 1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라] 저는 모임에 참석한 수천 명의 자매 여러분들이 걸었던 보석들을 대부분 헌납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거의 기아 상태에 있는 이 나라에서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인도 여성들은 현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친 보석들은 주인인 남편의 허락 없이는 내줄 수 없다 해도 여러분의 소유물입니다. 제 생각에 값비싼 보석을 걸치는 풍토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는 보석함에 넣어 놓거나 몸에 걸치거나에 상관없이 치명적입니다 보석을 단념하는 자기 정화의 노력은 분명히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려거든 기쁘게 하십시오. 여성 여러분들은 자신을 속박했던 것들과 헤어지게끔 이끌어 준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남성들도 가정에 단순함을 가져다 준 역할을 한 저에게 감사를 표현했지요. 제가 의사나 법관 그리고 상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껴안는 것에 대해 흐뭇함을 느낍니다. 한 뉘를 벌기 위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값비싼 장신구를 걸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가촉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 전 다른 의사들처럼 질병을 연구하는 대신 건강의 본질 건강한 행위의 본질을 연구하고 싶었던 일단의 내과 의사와 생물학자들이 남부 런던 페컴(Peckham)에 파이어니어(Pioneer) 건강센터를 설립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교 클럽을 만들었다 가족 단위로 회원가입을 받았고 가족 회원으로 등록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동의하면 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바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간을 관찰해야 한다고 페컴의 생물학자들은 생각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인간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관찰 결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곳에는 규칙도 없고 제약도 없고 리더도 없었다.

문제 해결

원리 적용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서술하시오.

1

[가]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세계를 분할하고 묶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분류를 한다. 서랍장에 속옷과 양말과 바지와 윗옷을 나누어 놓고,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고 자신의 자료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분류해 관리한다. 그리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직종과 직업, 나이와 지역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과 분류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인간은 '분류 본능'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분류에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관습과 관행 등이 투영된다.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두 팀이 몇 가지 겨루기를 하여 승패를 가린다. 그런 다음에는 승자는 천국 체험, 패자는 지옥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벌을 받는다. 이들은 지상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승자가 누리는 천국은 비싼 일식을 우아하게 만끽할 수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으며, 패자들이 누리는 지옥은 회 한 접시를 먹기 위해 노동을 하고 쟁투를 벌여야 하는 수산물시장이었다. 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람들의 관습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분류는 동일한 존재, 동일한 언어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분류는 꿈이지 현실이 아니다. '돌멩이, 휴대전화, 지우개, 소나무, 가방, 소설책, 개구리, 연필' 등 8개의 단어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해 보자.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창안해 이들을 꾸역꾸역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류의 핵심을 결과가 아니라, 대상들을 묶을 수 있는, 대상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기준을 찾아 분류하는 데는 사회 문화적이고 주관적인 세계인식이 개입한다. 만약 당신이 앞의 단어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했다면 그와 동시에 당신은 그 분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공통된 특성을 찾고 이를 범주 '외부'와 비교함으로써 범주 '내부'를 정당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르주 비노의 말대로 '사고의 역사는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물·존재·현상을 분류하려는 완만하고 인내심을 요하는 고집의 역사'이다.

사람들은 흔히 분류를 통해 사물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류에 의해 부여된 질서는 편벽되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분류에 의한 질서는 언제든 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류의 결과 세상은 범주화된다. 그런데 범주화는 대상들의 차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병들을

‘병’ 이라고 부르면 각 병은 크기, 색, 높이, 재질의 차이가 무시된 채 범주화된다. 이와 같이 차이를 망각하게 할 위험을 늘 안고 있는 질서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개인 경험의 산물이든 켜켜이 쌓인 문화적 무의식의 산물이든, 우리는 분류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분류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인 객관성, 즉 해당 시공간에 비교적 적절한 분류가 존재하는 것이지, 만고불변하고 전지전능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거부하는 노자의 ‘무위자연’은 바로 분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분류 자체에 대해 회의하고 성찰하자는 것이다. 세계를 향한 인간의 분류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허점투성이임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나누는 언어는 좀 더 진지하고 상호 공전과 존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김진해, 『분류, 그 유혹적 운명』에서

[나] 수목모델이란 나무꼴 류의 조직이미지를 말한다. 조직이미지가 닮았다 해서 수목모델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만이 수목모델의 전형인 것은 아니다. 장기놀이나 봉건적 군주제, 오늘날의 근대민주주의 체제, 남성중심주의, 위계적 이분법, 경직된 공간구성, 표준어 제도, 의사-간호사-환자의 병원 권력구조, 획일 문화, 이성애주의, 인종주의, 지역감정, 자기비하, 초국적 자본 등이 모두 수목모델들이다.

(중략)

수목모델은 그 수목적 결속구조에서 이미지화되는 것처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작동원리로 한다.

(중략)

수목모델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원리로 조직되는 한 그것은 권력관계나 착취관계, 혹은 특권화/위계화 고정으로 결속된다.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적 표상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수목적 형상들이 그렇게 전개되어 왔음을 술회한 역사-현실들이 보여주는 바다. 다음은 수목적 형상들의 몇 가지 사례다.

- ➡ 방속국 - 시청자 여전히 방속국은 시청자들 위에 군림한 체제다.
- ➡ 의사 - 간호사 - 환자 의사 ‘선생님’ 들은 간호사들에 대해 ‘선생님’ 호칭 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
- ➡ 아버지 - (어머니) - 아들 가족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 ➡ 교수 - 학생 학생들은 교수에 종속된 주체다.
- ➡ 선배 - 후배 대학가에서 일부 예비역 선배들이 후배들을 군사

문화적으로 규율화 한다.

- ➡ 남자 - 여자 여자의 욕망은 남자의 욕망에 종속된다.
- ➡ 기성세대 - 신세대 일부 기성세대는 신세대적 문화전복을 용납 못한다.
- ➡ 경찰 - 용의자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권을 무시한다.
- ➡ 기자 - 시민 기자는 시민들에 대해 특권을 즐긴다.
- ➡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을 착취한다.
- ➡ 상사 - 부하직원 상사는 부하직원대 대해 권위주의적이다.
- ➡ 정부기구 - 국민 정부기구는 여전히 관료주의적이다.
- ➡ 대표자 - 비대표자 대표자는 구성원들에게 권력자로 군림한다.
- ➡ 부익부 -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극심화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적 의미관계가 위계화 되어 나타나며, 그 위계적인 권력관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듯이 담론이다. 언어표현-가령 “여자가 무슨 …….”, “마빡에 피도 안 마른 놈아…….” 따위들 - 방식들에서 적나라하게 표출 된다.(일상대화, 즉 담론/언어 자체가 위계화된 방식으로 나타는 것도 수목모델과 관련된다.)

수목모델이 현실적 삶들에서 고통과 불행을 생산하는 것은, 그것이 권력관계/착취관계 혹은 특권화/위계화 구조로 짜여지는 한편, 상당히 파시즘적인 성향체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파시즘적 성향체계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은폐되어 진행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체계들 혹은 일상세계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다. 나무이미지는 우리들 너무 많이 피곤하게 하며 고통을 일상화시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목모델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정상/비정상, 정상/병리, 수용/배제, 규범/일탈, 선/악, 중심/주변, 고급/천박 따위들과 같은 위계적 이분법을 잣대로 타자 혹은 타자의 문화들을 차별, 열외, 분리하여 억압하거나 식민화하는 방식이다. 앞의 사례들이 ‘하위적’ 주체들 -시청자, 학생, 간호사, 부하직원, 자식 등-을 인정하는 구조에 서라면, 이 방식을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혹은 공론장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표준어-사투리, 백인-흑인(인종주의), 기혼모-미혼모, 국가체제-이적단체(예컨대 한총련), 남자-여자(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경험자-비경험자(경험주의자에 게서 나타남), 학력자-비학력자(가령 사원모집에서 대졸 이상의 제한조건), 전공자-비전공자(전공주의)등등이 그러한데 후자들은 부정당하고 배제 당한다.

가령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1961)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광기가 가진 폭력은 금지되었어도 광기가 표현될 수는 있었던 것에 비해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것이 표현되는 것조차 금지된 사실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여기서 그는 그런 고전주의적 제도를 이성

과 권력이 결탁하여 광인들을 격리하고 교화하는 지배 장치임을 분석해낸다. 이런 분석을 위계적 이분법이 우연적인 사례들로서가 아니라 근대사회가 진행되어오는 관정에서의 역사적인 제도화 과정이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식, 담론, 권력이 결탁되고 있음에도 푸코는 밝혀내었다.

(중략)

—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중 「소수문화들의 조직 이미지: 리즘모델」에서

문제 해결

2

[가]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강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 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 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 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살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 있을까. 살피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 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 처를 지금의 다래헌(茶來軒)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 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 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 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향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래헌을 찾 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耘虛老師)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 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 별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어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 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 주고 했 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 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 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

02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예제 확인
- 기출 연습
- 원리 적용

02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원리 접근



위 삽화는 소풍지를 놓고 급우들이 토론하는 장면이다. 아직 어디로 소풍을 갈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각자 소풍 장소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철수는 놀이공원으로 가자고 하는 데, 영수는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박물관으로 가자고 한다. 민수는 철수의 의견에 동주하는 발언을 하고 인수는 아예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소풍을 취소하자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처럼 소풍 장소라는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의 제시문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논술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 순서는 다양한 관점의 제시문을 수합하는 일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을 직접 집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관련 서적이나 교과서에서 발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제자가 제시문을 구성할 때는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내용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출제 의도에 따라서는 그림이나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도 분명하다. 즉 각각의 제시문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된다.

원리 이해



제시문을 읽어 가면서 주제를 파악했으면 그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주제가 정해졌으면 각각의 제시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이해하면 독해의 완성도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논제는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해 여부를 묻는다.

원리 01 | 동조 또는 대조의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원리 1〉은 제시문 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서술’하거나, ‘비교’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은 대부분 동조나 상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접할 때, 의도적으로 동조와 대조의 관점을 견지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구분하기 쉽도록 동조의 경우에는 ‘+’ 표시를, 대조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있지만 그 관점은 서로 다르다.

[가] 나의 유전자의 생존은 내가 자손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진화는 나의 자식의 생존과 번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화가 이타성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을 돕고자 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혈연이타성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공동체 일반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심은 생물학적으로 따져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모두 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 탁월성의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녀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단순히 허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칭송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관심이 보편성을 지니며 강렬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즉 가족을 돌보았을 때에 얻어지는 사회전체의 이익 때문에도 가족에 대한 관심은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또한 환자가 간호를 잘 받고 노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가족이 없었다면 공동체 자체가 짊어져야 했을 문제들을 가족은 자연스러운 애정의 결속

을 통해 스스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모르는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강하다면, 가족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향을 인정하는 윤리적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 한국의 근대화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발휘된 높은 경제적 동기와 헌신적 노동 투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이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동기와 투입을 자본주의 일반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한 사례로 보기에는 분명 석연찮은 면이 없지 않다. 경제성장의 욕구는 사실상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 이상으로 경제성장에 목말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예외적인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문화와 가족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긍정적 배경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유교의 효라는 의미의 원천으로부터 헌신적인 노동의 원동력을 제공받아온 현대자본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주의의 기저에는 효의 실천이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효의 실천이 혈연관계를 전제로 하고 또 그러한 혈연관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효의 지향은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높은 혈연적 신뢰의 규범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높은 혈연적 신뢰는 단순한 도덕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주의를 매개로 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가족주의가 일정 측면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을 노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족 간의 신뢰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유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혈연적 신뢰는 가족 상호간 강한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경제적 동기화와 함께 긴밀한 상호부조로까지 이어졌던 탓이다. 지난 세기 경제발전의 성취는 이 같은 혈연적 신뢰와 혈연적 응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가족적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적 복지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효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다] 에드워드 밴필드(Edward Banfield)의 저작 『후진 사회의 도덕적 기초』(*The Moral Basis of Backward Society*)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도시인 몬테그라노(Montegrano)에서의 사회생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인의 애착이 몬테그라노의 도덕규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성인(成人)이 그 가족과는 별개의 사익(私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자아(ego)’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존재한다. (중략)

몬테그라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도 자기 가족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마땅히 내야 할 것 이상으로 타인에게 베풀 여유가 없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공평한 몫을 낼 여유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 밖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경쟁자이며, 잠재적인 적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성적인 태도는 의심인 것이다. 부모는 다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의 성공을 시샘하고 두려워한다는 것과 피해를 입히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해를 끼칠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피해를 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몬테그라노 주민들이 느끼는 유일한 도덕적 의무란 자신의 핵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뿐이었다. 뱅필드는 이러한 형식의 가족에 근거한 고립을 ‘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고 명명했는데, 이 용어는 곧이어 대부분의 사회과학 사전에 수록되었다.

[라]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 수는 1995년보다 35.4%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부와 1~2명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혈연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들이다.

“예술과 관련한 개인 사업을 하는 최 씨는 비슷한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과 5년 전에 결혼했다.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결혼 조건이었다. 이들의 생활은 완벽한 부부 중심이다. 동호회 등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며, 서로의 여가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김 씨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자손들이 아니다. 그녀가 이 집의 중심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부엌은 6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당이다. 이곳은 일흔살 이상의 노인들 5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곳의 노인들은 가끔 자신의 실제 혈연가족들을 불러 파티를 열기도 한다. 이들에게 혈연가족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제시문 가】는 혈연에 기초한 생물학적 관점을, 【제시문 나】는 유교문화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소개하면서 효를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극단적 가족이기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제시문 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 형태 즉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과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

체적 가족을 형성하는 비혈연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에 비추보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동조적 관점이, 【제시문 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는 대조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다】의 경우 편협한 이기주의라는 점에서는 【제시문 라】의 덩크족과 동조적이나 비혈연 공동체와는 대조적이다.

원리 02 | 일반 또는 구체적인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최근의 논술시험을 분석하면 하나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개의 제시문이 주어진다. 제시문 가운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와 사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적 진술은 일반화로, 실증적 진술은 구체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감정노동**’을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 관점과 구체적 관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1] 유통 시장에 한층 더 조직화된 대규모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종전의 소규모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했다면 새로이 등장한 대규모 기업들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판매한다.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그의 노동과 기술을 구매한다. 그런데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의 경우 기업가는 피고용자로부터 노동과 기술뿐 아니라 인성도 구매한다. 노동자의 임금 노동은 고용주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일이다.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는 그에 더하여 고객이나 관리자 같은 수요자를 위해 종종 자아를 희생해야 한다.

서비스 판매도 시장의 논리에 좌우되므로 ‘인성 시장’이 그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상품 생산보다 인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고용자의 인성이나 인맥 형성 능력 등이 교환의 영역에 이입되고, 그로써 상업적 관련성을 지닌 상품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통제권이 가격을 매개로 이전될 때 인성 시장이 형성된다. 인성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고용자는 기업의 관료 구조 속에 편입되어 상위의 권위자에 의해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피고용자의 일상 업무는 고객과 접촉하여 그에게 회사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고객은 피고용자와 무관한 익명의 존재이어야 한다.

고객은 인성 시장에서 상업적 가면을 쓴 존재를 만난다. 따라서 고객은 백화점 판매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판매원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값을 지불하면 된다. 백화점 판매원도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친절과 호의는 기업의 판매 전략을 합리화하는 대외적 측면에 해당한다. 따

라서 판매원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형적인 준칙과 규율을 지켜야 한다. 판매원은 상품들을 전시하고 그것들을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할 뿐이다.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원은 자신의 인성을 사용한다. 판매원은 자신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익명적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원의 본심과 고객에 대한 그의 행동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매장에서 판매원이 짓는 미소는 상업적인 미끼이다. 판매원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진이 부주의한 탓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원이 자기 규율과 성실성, 재치, 품위 등을 개인적으로 내면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판매를 위해 그러한 미덕들을 고객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인사 전문가의 교육 지침서에는 직원들이 ‘무뎀하고 무난하며 효과적인 인성’을 갖도록 육성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소규모의 자영 상인들처럼 판매 직원들도 서비스와 인성을 통해 서로 경쟁한다. 그러나 자영 상인들과 달리 판매 직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시장을 판단하여 판매할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시장에 대한 판단과 구매 결정은 전문가들의 몫이다. 판매 직원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영웅처럼 자기 계발과 관리를 통해 승진을 위한 개인적 능력을 형성할 수 없다.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인성도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인성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대의 기업들은 치밀하게 짜인 장치로 직원들을 훈련하여 그들이 인성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한다. 그런데 인성 시장에서 작동되는 판매의 방식이 가장 유력한 처세의 방식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공적인 사업 관계에서 형성된 기술이 사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새로운 처세의 방식을 전하는 책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빙통그러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가난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날 새로운 귀족계급이 생성되고 있다. 개인적 매력의 귀족이 바로 그 계급이다.” 새로운 귀족계급의 성원은 겉으로는 다른 성원을 상급자로 우대하는 한편 속으로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되뇌는다.

현대의 대도시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상호 불신과 자기 소외의 바닥에는 인성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계약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화폐 중심의 거래 관계는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고 개인의 삶과 대인 관계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한다. 고객에게 친한 척하는 판매원의 윤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요구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윤리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처세를 위한 방편으로 그 윤리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윤리가 보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 행위에 조작이 내재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2] 최근에 은행업, 보험업, 관광업 및 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직업이 증가

함에 따라 ‘감정노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도 현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감정노동은 특정한 범주의 직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적·사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쇼핑은 아이들 때문에 심하게 부대끼는 부모들에게 종종 감정노동을 단련할 기회가 된다. 부모들은 계산대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에게 고향을 지르기보다는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및 병자를 돌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관계 속에서 노동을 한다. 그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 직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얼굴 표정과 육체적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임무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속에서 그들은 고객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표면 연기는 이 딜레마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표면 연기가 위선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노련한 직업인들은 표면 연기 대신 내면 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무례하고 공격적인 환자를 다룰 때 그 환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그런 대처 방식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자기감정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직업이 몸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특정한 감정과 육체적 상태를 요구하는 업무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자신의 행위가 자아 개념과 모순된다고 인식될 때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진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할 때 몸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가해지는 긴장에 대해 무의식적인 저항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감정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 사무원 ++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향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종일 損益管理臺帳經(손익관리대장경)과 資金收支心經(자금수지심경)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채고자산 부실채권 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읊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 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長座不立장좌불립' 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4] <표>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 (천 명)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산업						
1차 산업		3,712	3,272	2,403	2,243	1,815
2차 산업		3,647	4,992	4,884	4,311	4,252
3차 산업		7,562	9,801	13,168	14,602	16,789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전 체	—	—	350	481	639
	남 성	—	—	119	149	181
	여 성	—	—	231	332	458

*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양로원, 고아원, 육아시설, 복지관 등의 종사자 포함.

【제시문 1】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성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시문 2】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고객을 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에 관한 내용이다. 【제시문 3】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저당잡힌 평범한 사무원의 일상이, 【제시문 4】는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를 한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시문 4】는 3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조사자 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1】은 '감정 노동'이 형성되는 포괄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관점을, 【제시문 3】은 '감정 노동'이 개인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므로 구체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원리 03 | 확장 또는 연계적인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주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시문은 주제의 범위내에서 진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제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내용이 제시되거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진술되기도 한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추상화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장적 관점으로, 주제를 다른 시각에서 진술하고 있으면 연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내용은 2009학년도 외국어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 확장적이며 연계적인 관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제시문]

A Greek philosopher's saying 'Office will reveal the man' is felt to be valid; because an official is in a relation to, and associated with, somebody else. And for this same reason—that implies a relation to somebody else—justice is the only virtue that is regarded as someone else's good, because it secures advantage for another person, either an official or a partner, So the worst person is the one who exercises his wickedness towards both himself and his friends, and the best is not the one who exercises his virtue towards himself but the one who exercises it towards another; because this is a difficult task. Justice in this sense, then, is not a part of virtue but the whole of it, and the injustice contrary to it is not a part but the whole of vice.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자료 1>

다윈은 한 때 "범인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으로서만 옳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리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행복의 수준을 높여주는 한에서 벌을 주어야 한다. 복수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고 공리주의자들이 전체의 행복을 계산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벌은 그 벌을 줌으로써 미래의 범죄를 예방을 통한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이 그 슬픔보다 더 클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료 2〉

많은 국가에서 형벌은 몇 가지 분명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실용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철저히 도덕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는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에서의 징벌이다. 비록 이러한 처벌은 실용적인 기능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처벌은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신이 우연히 어떤 섬에서, 이미 본토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95세의 탈옥수를 발견했다고 하자. 아마도 당신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죄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가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본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처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하늘 어디에선가 정의의 신은 당신의 처벌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자료 3〉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 평원지대의 인디언들을 한 예로 살펴보자. 이 인디언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기할만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식인풍습을 갖고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화된 일종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찰력은 일종의 사법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디언들은 죄인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유대로부터의 단절이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령 한 인디언이 부족의 규례를 위반하여 그 결과 텐트와 말을 포함한 그의 전 소유물의 파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흥미로운 점은 이 선고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그 인디언에 대해 일종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기관은 처벌로 인해 그 죄인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로 인해 범죄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떠안게 된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회에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동체는 이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채무 관계의 역전이 반복된다. 이러한 관계의 재역전은 증여와 대(對)증여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인해 발생한 최초의 무질서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자료 4〉

유고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2년 보스니아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보스니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도 보스니아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긴 했지만, 보스니아는 3년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대표적인 참상은 내전 막바지에 7000명의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이다. 세르비아 점령지대에 자리한 스레브레니차는 이슬람교도 집단거주 마을로서, 세르비아계는 그곳에서 인종청소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세르비아계만 가해자일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전범이고 가해자이다. 하지만 세르비아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손을 잡은 크로아티아계에 의해 대거 학살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서로 간 뿌리 깊은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전이 악화되자 미국과 나토군은 보스니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에 따라 내전이 종식되었고, 내전 때 세르비아계에 의해 저질러진 크로아티아계 대량학살의 책임을 묻는 국제 전범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화로운 다민족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민족과 종교를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세력에 의해 허물어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자료 5〉

안티고네 : 이스메네야, 내 동기야. 온갖 고난과 파멸과 부끄러움과 욕스런 일치고 너와 나의 불행 중에서 안 당한 것이 없구나. 게다가 이제 왕이 오늘 선포한 것이란 무슨 일이란 말이나? 듣지 못했니? 글썄, 우리 소중한 분들을 원수로 몰다니, 넌 모르고 있니?

이스메네 : 안티고네 언니, 우리 두 오빠들이 서로 싸워서 하루에 다 죽고 만 다음부터는,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소중한 분들의 소식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르고스의 군인들이 도망친 후로는, 내 운명이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 이상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안티고네 :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게만 말하려고 너를 궁문(宮門) 밖으로 데려온 것 이란다.

이스메네 : 어떤 애긴데요? 무슨 어둔 소식이 언니 가슴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안티고네 : 글썄 크레온 아저씨가 우리 오빠들을 한 사람은 정중하게 장사 치내도록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지 않겠니? 오빠는 바른 법도에 맞게 장사를 치르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하게 묻어 준다더라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폴리네이케스 오빠의 시체는 아무도 땅에 묻거나 그를 위해서 조상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 없이, 새들이 좋은 먹이라고 멋대로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 장

안에 내렸다고들 소문이로구나. 그런 명령을 저 고귀하신 크레온 님께서 너와 나를 향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내렸다고들 말하더라. 아직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곧 그분이 이리 오시겠지.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긴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때려죽인다더라. 너도 이젠 알았지? 그러니 네가 높은 가문에 맞는지 아니면 천하게 태어났는지, 이제야말로 보여 줄 때가 됐다. 나와 함께 하겠니? 날 도와 주겠어? 나를 도와서 그 시체를 들어 내지 않겠어?

이스메네 : 장례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온 장안 사람들에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안티고네 : 내 오빠, 그리고 싫건 좋건 네 오빠가 아니냐? 아무도 내가 오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겠지.

이스메네 : 어떻게 감히 그렇게……. 크레온 왕이 금하고 있는데.

안티고네 : 그분에게는 권리를 내게서 떼어 놓을 권리는 없는 거야.

이스메네 : 글썄 그래도 언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는 지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스스로 죄를 들춰내고, 결국 당신 손으로 두 눈을 찔러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면서 아내라는 두 이름을 가진 분은, 스스로 만든 고리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리고 이제 두 오빠는 같은 날, 무참하게도 동기간에 피를 흘리고 돌이 다 서로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젠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 언니, 우리가 만약 명령을 어겨서 왕의 법이나 권력을 손상시킨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어요! 우린 약한 여자예요, 이젠 잊지 마세요, 남자와 싸우도록 타고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쓰라린 명령에도 복종해야 해. 그러니 돌아간 분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아무래도 어쩔수 없는 일이니 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겠어. 분수를 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안티고네 :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젠 네가 하겠다 해도 네 도움은 고맙지 않다. 너 좋을대로 하렴. 내 손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고귀한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쉬려다. 살아 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동안이 더 길단다. 나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나 신께서 송고하게 세우신 법을 비웃고 싶거든, 실컷 비웃으려무나.

이스메네 : 비웃는 것이 아냐. 하지만 나를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은 내게는 없어요.

안티고네 : 그건 너의 핑계야.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 위에 흙을 덮어 드리겠다.

이스메네 :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획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요.

안티고네 : 아, 말해도 좋아. 네가 세상에 떠돌어 대지 않는다면 너를 더 미워하겠다.

이스메네 : 그 끔찍한 일로 언니 가슴은 타고 있어요.

안티고네 : 내가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일에서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스메네 : 성공만 한다면야,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는 것은 억지예요.

안티고네 : 그따위 소릴 하면 나도 널 미워하게 되겠지만, 돌아가신 오빠에게서도 마땅히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날 내버려 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나 혼자만의 바보짓이야. 내 훌륭한 죽음을 뺏을 수 있는 벌은 없으니까

〈자료 6〉

(미국 〇〇주의 형(刑) 선고 가이드라인)

범죄 수준 (몇 가지 예시적 범죄)		형(刑)의 범위				
9	모살(謀殺) *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8	살인 (고의) 무장침입강도	96-144개월	108-162개월	120-180개월	144-216개월	204-206개월
7	무장강도 (흥기) 신체상해 (고의)	60-90개월	68-102개월	84-126개월	108-162개월	160-240개월
6	살인 (비고의) 부장강도 (충기아님) 폭행구타 (중한 상태)	40-60개월	45-67개월	50-75개월	60-90개월	80-120개월
5	비무장강도 절도 (5만달러이상)	12-36개월	24-36개월	36-54개월	48-72개월	60-90개월
4	소매치기절도 폭행구타 (보통 상해) 절도 (1만달러 ~ 5만달러)	0-24개월	3-30개월	6-30개월	20-30개월	24-36개월
3	폭행 협박 절도 (250달러~1만달러)	0-12개월	0-15개월	0-18개월	0-24개월	6-24개월
2	협박 250달러 이하의 절도	벌금	0-6개월	0-6개월	0-9개월	0-12개월
1	면허정지 후의 운전행위 풍기문란 소란 및 질서파괴행위	벌금	벌금	벌금	0-3개월	0-6개월
범죄 전력(前歴) 분류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전력	보통 전력	중대한 전력	심각한 또는 반복적 전력	중대한 반복적 전력

위 제시문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덕(德)을 타인을 위해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덕(德)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의 개념을 〈자료1〉은 공리주의적 관점, 〈자료2〉는 도덕적(응보적) 관점, 〈자료3〉은 교환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의라는 주제를 유지한 채 〈자료4〉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에 관한 시사 자료, 〈자료5〉의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 〈자료6〉은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과 연계하고 있다.

예제 확인

 다음은 2008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에 나온 논술시험의 일부이다.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어 제시문 간의 의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인주의와 시장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학자인 스미스(Smith, A)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결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방임하다 보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커져서 사회 구조화되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고, 개인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와 자기 쾌락 누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야 어찌 되든 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때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가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질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내지 '복지 자본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나] 빈곤은 개인의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잘못도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내버려두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보인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29위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10분위소득 분배율은 9.4배로 OECD 평균(4.3배)의 두 배가 넘는다는 공인된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의 분배구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2004년 OECD 통계). 더구나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누어 비교한 5분위소득분배율이 8.4배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를 감안하면, 현재 10분위소득분배율이 19배 이상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분배제도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을 결정하기까지는 이념적 대립과 정치사회적 갈등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불가피하다. 누가 옳은지는 정치적 선택, 즉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분배정책이 성공하려면 객관적 상황 분석과 합리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정책적 문제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다] 연금술이란 납과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탄생한 연금술은 종종 기묘한 작업과 신비적 이론 때문에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직업을 숨기고 몰래 실험에 몰두했으며, 비법을 은폐하고자 기록에 각종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연금술은 13세기 유럽에서 광적으로 성행하였다. 연금술사 중에는 학문을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으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자들이 더 많았다. 16세기 말엽까지 계속된 연금술 광풍은 아무 소득이 없자 그 열기가 사그라졌다.

연금술사들의 엉뚱한 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들의 끊임없는 실험은 과외의 소득으로 수많은 화학 원소들을 발견했으며 제약과 의학 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중세시대의 유일한 학문기관인 대학에서조차 이 같은 실험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탐구에 몰두했던 것이다. 이는 화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황금에 대한 욕망이 실험정신을 고양시켜 과학을 발전시킨 셈이다.

[라]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다. 인류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는 지적 호기심과 충동을 발현시키려는 특성이 입력되어 있다. 인류는 이러한 본성을 통하여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탐구정신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이다.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동시대 사회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리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기 전에 중단했다면 인류가 이루어 왔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낳은 문제를 선불리 해결하려다가는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동시대 윤리에 저촉되거나 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윤리 관념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게 되었거나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극복되었고, 결

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인류의 생활에 도움과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어떤 기술은 예전에는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결국 사회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부산물 – 한계와 부작용 등 – 이 과학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극복될 때까지 자유롭게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난 과학발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마] 우리는 과학 및 기술의 혁신이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 발명의 결과인 자동차, 화학제품, 플라스틱, 핵에너지, 항공여행, 텔레비전, 컴퓨터, 생화학무기, 우주탐사 등과 최근의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선통신 등은 이미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의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예측하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초고속 전철이나 대형 비행기는 많은 사람과 화물을 빨리 수송할 수 있으나,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그만큼 더 크다. 우주 탐사 계획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낳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불편과 손실은 기술 문화가 주는 편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이지만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거론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혜택에 관한 이야기만 들린다. “핵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한”하다거나 “생명공학은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기술이 도입된 지 한참 뒤에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에 쏟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과학계에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제시문 가】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성격과 그 변천 과정을, 【제시문 나】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분배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내용이 일반적이라면, 【제시문 나】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과학 기술 개발은 외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문 마】는 과학 기술 개발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예방적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서로 상대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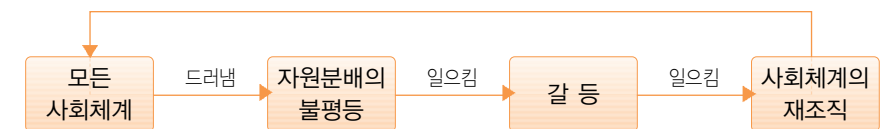
다음은 2008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모의고사(인문계)의 제시문이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한 후, 이를 중심으로 개별 제시문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A]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서 존재한다. 심지어 재산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가장 단순한 원시 사회에서조차도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으로 존재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근대 이후의 기본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일까? 한 사회에는 부, 권력, 위신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자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은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원이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간에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B] 갈등이론의 전면적 인과상 (도표)



위 표는 갈등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것이다. 각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조건 아래에서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이한 조건들 아래에서 그 사회체계의 조직을 변동시킨다. 그림의 맨 위에 있는 피드백 화살표는, 체계의 재조직이 갈등의 발생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변증법적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체계는 언제나 내재적 갈등 생성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 순환의 연쇄는 끝이 없다.

– J. H. 터너, 「사회학 이론의 구조」에서

[C] 대부분의 기능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사회는 서로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 각 부위는 필수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작동한다. 만약 신체 각 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유기체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뒤르켐에 따르면,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회가 계속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체적 제도들(예컨대 정치체계, 종교, 가족, 교육체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연속성은 협동—기본적 가치

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일반적 합의 혹은 동의라고 차례차례 추정한다—에 의
존한다.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아주 다른 전망을 가진다. 그들의 주된 가정은 마
르크스의 계급 투쟁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보기로 사용해 보면 쉽게 윤곽이 그려진다. 현
저한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이해관계의 분화가 존재한다. 이러
한 이해관계의 갈등은 일정 시점에서 급진적 변동 과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급간의 적극
적 투쟁으로 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마르크스만큼 계급에 집
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분화들 예컨대 인종 집단이나 정치 분파들 사이의 분화
들이 갈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강조가 갈등집단에 주어지
고 있으며, 사회는 본질적으로 긴장이 가득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가장 안정적인 사회
체계조차도 적대적 집단의 불안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 앤터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에서

[D]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여 가
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사항, 주거상태,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아래의 표들은 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 1>은 전체 가구를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 5개 계층으
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또한 <표 2>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
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3>
은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골라 이들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계층
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표 1>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연평균 가구소득

교육정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소득(만원)	1,631	2,278	2,784	3,092	4,158

<표 2> 가구의 소득별 평균 가구부채

소득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소득(만원)	1,523	1,756	1,998	3,067	4,222

<표 3> 가구의 소득별 평균 가구부채

소득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소득(만원)	4,119	3,478	4,067	4,894	8,993

[E] 340여 년 간 지속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합리화한 가장 잔인한 인종 차별 정책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인종
차별법은 전체 인구의 약 14%에 불과한 백인들이 주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
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스포츠에서조차 배제시킴으로써 흑인의 민족성을 무
력화하고 흑백 간의 인종 차별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인종 차별 정책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저항과 제재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대열의 선봉에 서서 결국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만델라이다. 그는 1944년부터 아프리카 민족 회의에 참여하였고, 곧바로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권당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항하다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두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다. 1960년에는 경찰의 발
포로 비무장 군중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평화 시위 운동을 중단하고 무장 투쟁을 지
도하다가 1962년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비판적이던 국제 사회에서 만델라의
투쟁은 하나의 위대한 지향점으로 인식되었고 1990년 2월 석방 때까지 27여 년간을 복역
하면서 그는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후, 1992년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인종 차별 정책의 완전
한 폐지를 선언하였으며,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참여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총선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63%에 달하는 표를 얻어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정권이 들어섰으며,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제도적인 인종 차별의 철폐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정치적,
법적인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도 사회 문화적으로는 불평등이 남아 있으며, 특
히 소수의 백인들이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은 여전히 갈등의 원
인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일체 금지하는 평
등 촉진 및 부당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인종 차별의 유
산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서에서

[F]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1-- 197x, 4,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 불 이 귀하

제목: 재개발사업구역 및 고지대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

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려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화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들어 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얼굴은 발갈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은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화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호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에서

제시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다. 【제시문 A】는 자원배분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위계와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일반론을, 【제시문 B】는 불평등에 따른 갈등과 사회체계의 변화 과정을 도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제시문 C】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이 나타나 있고, 【제시문 D】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통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시문 E】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체계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에 대한 확장이, 【제시문 F】는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 도시빈민의 힘겨운 삶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출 연습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고사 문항 가운데 제시문만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서술하시오.

1. 2008학년도 한양대 정시 논술고사(문항 2)

【가】 인간은 결코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제각기 자기의 목적이 나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합 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때문이다. 즉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욕망을 비롯하여 권력욕, 명예욕, 허영심 등과 같은 각종의 심리적 욕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이와 같은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나】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대한 권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권위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 배분에 관한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18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는 전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나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러한 전망이 실현된 사회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각자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의 해결이 일정 부분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질수록 사적인 타협에 의한 해결의 여지는 작아진다. 설령 아무리 작고 단순한 사회라 할지라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이름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한한 가치에 대한 경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끊임없는 투쟁에 시달릴 것이고,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 있는 상호작용이 사라져 버릴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라도 모두가 희구하는 것을 누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권위적인

결정을 내리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위한 권위적 결정 메커니즘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다] 동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현실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똑바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생애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식량을 얻어먹고는 일할 수 있는 자들은 힘닿는 한 최후까지 강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 용도가 폐기된 농기구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이라든가 여가라든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근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근로자 또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일생은 비참한 노예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자연의 법칙일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척박해서 우리들에게 풍요한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곳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식량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농장 하나만을 보더라도 수백 명의 근로자를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편안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째서 이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들의 노동에 의해 생겨나는 수확의 대부분을 농장주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장주입니다. 농장주야말로 우리들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적입니다. 이 농장을 농장주로부터 빼앗아 옵시다. 그러면 풍요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해결

2. 2007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논술고사(6~7번 문항)

[가] 약 12세기까지 중세 예술은 아동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동기를 묘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실수나 무능력 때문에 아동기를 제쳐놓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아동기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11세기 유럽의 한 세밀화는 당시 화가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신체를 변형시켰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예수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서 장면을 담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 원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아주 어린 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세밀화 속의 예수 옆에 모여 있는 8명의 남자들은 아동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단순히 축소되지만 했을 뿐으로, 크기로만 성인 남자와 구별될 뿐이다. 11세기말 성 니콜라스의 부활 장면을 담은 프랑스의 한 세밀화도, 성인 남자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단지 몸집만 작아졌을 뿐인 3명의 아이들이 소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가는 성인 남자의 근육을 가진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을 주저 없이 그리고 있다. 12세기 말 혹은 13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성 루이 드 레드의 시편을 보면 막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인 남자처럼 복부와 흉부에 근육을 갖고 있다. 많은 감정과 의식을 불어넣기는 했지만 13세기에도 아동기에 대한 묘사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 방식에 충실했다.

[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은 표면에서 반사된 빛에 의해 촉발되는 일련의 신경 활동에 의존한다. 전적으로 물리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빛이 눈의 망막에 도달하면, 신경 활동으로 변환되어 두뇌로 전달된다. 빛의 물리적 특성은 질서정연한 규칙에 따라서 작동한다. 따라서 신경 변환도 매우 규칙적이며, 사람들 간에 구체적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적 인상은 말초신경계의 수용기세포를 흥분시키는 감각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적 인상에는 감각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찰자의 인지적 배경이 수반된다. 따라서 메리 카셋(1844~1926, 미국 출신의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볼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정서적/지적 반응은 나의 경험과 전혀 다를 수 있으며, 동일인의 경우에도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반응과 카셋의 〈목욕〉에 대한 반응이 판이할 수도 있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에 대한 심적 구조를 발달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는 광범위한 공통경험의 영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적 등가성(intellectual equivalence)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생리적으로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각자극의 최초 처리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단순한 예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시각의 이중성 개념이다. 시각경험은 눈에 주어지는 시각자극뿐만 아니라 두뇌에 의한 감

각경험의 해석을 통해서 달성된다.

[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며,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며,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의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이기에 눈이란 진정 감옥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부분이라는 틀, 인식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식의 세계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어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틀짓는’ 감옥의 세계, 관견(管見)의 세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식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논리적 사유—이성적 담론—는 일면 가장 비철학적이다. 인식의 역사는 감옥의 역사이며, 인간 사유의 역사는 ‘틀짓기’의 역사다. 틀짓기의 역사는 전체를 부분으로 난도질하는 ‘비틀기’의 역사다. 눈이 있고 그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한, 즉 인식의 주체인 ‘나’가 있고 인식의 대상인 ‘너’가 있는 한 ‘틀짓기’의 역사, ‘비틀기’의 역사는 필연이자 숙명인 것이다. 눈이 본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절대화하는 인식의 폭력은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것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라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체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어 이를 전체인 것처럼 틀짓는 것, 이것이 인식작용의 본질이자 한계이며 숙명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펼치는 인식작용의 총체적 산물인 언어도 인식작용과 마찬가지로 숙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명 그 어디서 인간다운 ‘진보’의 역사, 인간다운 ‘발전’의 문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시기, 음욕, 탐욕 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눈은 “좋은 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악한 눈”이라는 라캉의 주장이야말로 모든 대상을 ‘타자화’하고 폭력을 유도하는 파괴적인 인간의 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규정이 아니겠는가. 타자화는 인식의 주체가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폭력과 다름없다. 이러한 틀짓기, 비틀기의 역사는 바로 모든 개념화의 원천인 눈이 펼친 역사다. 인간의 눈이 본질적으로 ‘악한 눈’이라면, 눈이 있는 한 인간의 세계는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종교적 용어를 구사한다면 인간에게 구원은 없다.

[라] 아래의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이다. 입체주의(cubism)는 여러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하여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분해한 다음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입체주의는 피카소가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발표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였다.



문제 해결

3. 2008학년도 경북대 논술 모의고사

[가]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깃발이나 십자가, 초승달과 같이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중요해졌다.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 정체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다. 사람들은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적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킨다. 이 중에서 종교는 문명을 규정하는 핵심적 특성이 다. 현재 존재하는 주요 문명은 서구, 정교, 이슬람, 힌두, 중화, 일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이다. 이제 세계 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경계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갈등은 사회적 계급이나 빈부 차이에서 나타나지 않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 상이한 문명에 속하는 국가나 집단 사이의 투쟁은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각 국가들이 어느 세력을 지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은 서로 다른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단층선에 발생한다.

[나] 법률이나 국가의 형태는 그 자체로부터도, 인간 정신의 일반적 발전으로부터도 파악될 수 없으며 물질적 생산 활동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경제를 분석해야 한다. 생산관계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물질적 토대를 이루며, 그것에 상응하여 상부구조 즉 법적·정치적 형태와 사회적 의식의 형태들이 형성된다. 물질적 생활의 형태가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 혁명기가 시작되면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도 조만간 변화한다. 그런 변혁을 고찰할 때는 물질적 토대인 경제적 생산 조건의 변혁과, 상부구조에 속하는 법률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 형태들의 변혁을 구분해야 한다. 사회 갈등은 의식의 갈등이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대체로 사회구성체는 아시아적 생산양식, 고대적 생산양식, 봉건적 생산양식,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으로 진보한다.

[다] '세계경제(world-economy)' 개념은 '국제적 경제' 개념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국가' 단위의 개별적인 경제가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가경제가 상호교류하면서 국제경제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경제' 관점은, 시장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는 생산과정의 통합적 틀을 가진 사회적 분업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하나의 '경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세계경제는 국가경제들의 단순한 연

합이 아니며, 20세기에 와서야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로서 세계경제는 16세기부터 존재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우리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국제적 분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며, 중심부는 부도가 교환을 통해 주변부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있다.

[라] '제국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몰락, 전지구화의 확산으로 인해 근대를 지배하던 '국민 국가'의 주권은 쇠퇴하고 그 대신에 전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권력 형태인 '제국'(Empire)이 등장하고 있다. 전지구적 시장 및 전지구적 생산과 더불어 전지구적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배 구조,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주권 형태가 등장했다. '제국'은 이러한 전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체, 즉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이다. 근대 '국민 국가'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한계로서 국경선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으며, '제국주의'는 이러한 국민 국가의 주권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 역시 그 중심은 '국민 국가'이다. 이에 비해 '제국'은 결코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된 경계나 장벽들에도 의존하지도 않는다.

제국은 개방적이면서 팽창하는 자신의 경계 안에 지구 전체를 점차 통합하는,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하는 지배 장치이다. 제국은 명령 네트워크를 조율함으로써 유연한 위계질서와 다원적인 교환을 관리한다. 제국 개념은 공간적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망라하는, 즉 사실상 전체 문명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불균등 발전의 지리학 그리고 분할과 위계의 구분선은 더 이상 안정된 일국 경계나 국제 경계를 따라 발견되지 않고, 유동적인 국내 영역들과 초국가적 영역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마] 1992년 4월 유고슬로비아 연방에서 보스니아 내전이 발생했다. 보스니아 정부(이슬람교), 크로아티아계(가톨릭), 세르비아계(그리스 정교)로 구성된 보스니아가 이슬람계의 주도로 독립 정부를 구성하고 연방에서 탈퇴하자, 연방 맹주였던 세르비아 정부와 보스니아 내부의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발해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세르비아계가 우세한 무력으로 3년을 끌면서 점령지 곳곳에서 크로아티아계와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인종 청소'라는 신종어가 나타났다.

보스니아에서 처음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과 덴마크는 크로아티아를 지지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세르비아 편이었다.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여론의 압력으로 서구 국가들이 보스니아의 이슬람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오랜 망설임 끝에 옛 유고 연방의 다문화 국가 공동체의 전통과 이슬람의 자치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하여 5만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이익을 아주 좁은 범위에서 보호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초기부터 유고 연방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제재에 동의했으며, 나토의 응징 조치를 방해하지 않았다.

 문제해결

원리 적용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시오.

1

[가] '제3의 길'은 고전적 사회주의의 사회 정의, 연대, 평등,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우파를 아우르고 종합하는 중도 좌파의 이념이다.

제 3의 길'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와 정부를 개혁하여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민주화하려고 한다. 범세계화와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공공성 제고, 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확대 등을 추구한다.

둘째로 정부와 시민 사회의 행위체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

셋째로 정부가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루려고 한다. 창업과 기술 혁신 지원, 평생교육 실현, 공공사업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 다국적 기업 간 교육의 공통기준 마련과 상호 인정, 연금 권리의 휴대 가능성 제고, 가정친화적 직장 정책 등을 포함한다.

넷째로 민족의 내부적 통합을 이루면서 문화적 다원주의 관점으로 초국가적 정책결정과 제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 박찬욱, '새 세기를 향한 제 3의길'에서

[나]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등장하였기 때문에 자본을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논리로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려 한다. 사회적 관계를 민중 통합적 구조 개편은 무효화하면서 시장경제적 관계로 개편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사회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 자유화에 의해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고 해결되도록 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 (individualism), '강력한 시장' (strong market), '강력한 국가' (strong state)를 기초로 한다. 개인의 자유는 취향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제적 자유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완전한 시장 체제라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으며,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전한 경쟁에 의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시장은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완전한 시장 체제가 이루어지

면 노동문제나 사회적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부문도 시장체제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작은 정부이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 박광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에서

 문제해결

2

[가] 자아 발견이란, 단순히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고, 어떤 가능성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이다. 즉, 타인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중략)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무비판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주로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에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깊은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자아'에 눈을 돌릴 수 있다. 한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중략)

주어진 조건이나 제약에만 너무 수동적으로 얽매어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분담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때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늘 자아를 형성해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이룩되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나] 고대 그리스에서 ‘오이코스(oikos)’란 ‘집’을 의미하는 말로 일차적으로는 가족이 기거하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되, 동시에 인간의 삶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최소 단위의 집단, 즉 ‘가족’도 의미한다. 오이코스에서 가정(家長)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고 가족 구성원들은 그의 통솔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가족이 이렇듯 엄격한 통제 체계로 다스려지는 것은 그것이 인간 생존의 필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오이코스’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 있었다. 다른 아닌 ‘폴리스(polis)’가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국가 형태였던 ‘도시(cite)’, 나아가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공적(公的) 삶’을 가리킨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폴리스가 오이코스과 전혀 다른 법과 논리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폴리스에는 그 중심부에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한편 도시의 공적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하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모여 도시의 행정, 법의 운용, 재정과 공공 사업 등 모든 공적인 문제들을 논할 때 그들은 동등한 자격과 균등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곳에서는 오이코스에서처럼 사전에 규제된 위계질서도 없었고, 권력의 독점도 없었다.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사를 개진할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대화와 토론의 문화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며, 이것이 곧 폴리스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논리적 사고와 연술(言述)의 기교가 활짝 꽃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요컨대 타당한 논리로써 그리고 수사적 기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였으며, 사람들은 제각기 사고와 웅변의 기술을 연마하기에 힘썼다. 만약 그곳에서 어떤 권력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기성(既成)의 권위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에서였을 것이다.

- 이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에서

 문제해결

03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예제 확인
- 기출 연습
- 원리 적용

03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원리 접근



위 삽화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소풍 장소에 대한 공고와 담임 선생님이 소풍 일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다. 소풍 장소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의사를 수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단체 행동이 이루어질 소풍날도 적절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술문을 쓰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논제 분석이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출제자는 ‘요약하라’고 했는데, ‘논술하라’로 잘못 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는 무엇을 묻는지 모르고 작성한 답안인 것이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답안의 단락 구성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분석된 논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제시문 독해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제들은 이 두 단계만 거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답안의 구성과 분량 등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개요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글에서의 개요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설계도에 해당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개요 없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없다.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

러나 개요 작성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요약형 논제나 비교, 자료 해석형 논제 등에 답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분석된 논제를 바탕으로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고, 다음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즉, 단락 구성 정도만 하면 된다. 하지만, 800자 이상의 서술·논술형 논제에서는 개요를 치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개요가 없다면 ‘가분수형 논술문’이 되기 쉽다. 서론에 모든 내용을 다 쓰고는 본론과 결론에서는 중언부언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서술·논술형 논제에서 개요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제문과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제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답안에서 결론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으로 그 주제에 대하여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논술문의 핵심은 타당한 근거 제시에 있다. 논술문이 글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근거가 보편타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위와 같은 고민을 거쳐서 개요와 답안을 작성한다면 훌륭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 이해



독해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졌어도 논제의 요구 사항대로 글을 쓰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논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글을 써야 하는 방향과 과제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논제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그리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논제 자체에 있다.

원리 01 | 논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논제는 여러 요구 사항과 단락 구성의 실마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구 사항은 ‘무엇을 고려하여’, ‘어떻게 쓰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2008학년도 모의 논술 문항이다. 이 논제는 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2가지를 묻고 있다. 더욱이 첫 번째 물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 번째 물음은 해결할 수 없다. 【제시문 나】의 논지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는 광고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다. 이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소비 형태를 해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 2가지 물음의 답안에는 일정 정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을 참고하여’라는 고려사항이 없었다면 수험생 본인이 느끼는 대로 【제시문 다】를 해설하면 되지만, 이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제시문 다】의 해설하는데 수험생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논제를 분석할 때에는 ‘무엇을(What)’, ‘어떻게(How)’ 쓰라고 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려사항(Option)’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고려사항’을 찾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의 답을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논제]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40점)

[나] 산업화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실제로 그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일 수 있다. 테오도르 슈토름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거지 아이는 행인들에게 “제발 사세요! 아저씨, 제발 이것 하나만 팔아주세요!”라고 애원한다. 옷가게 주인에서 수공업자와 대기업의 영업 담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급자들도 그 거지아이처럼 애원한다. “여러분, 제발 사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애원한다고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소비자를 교묘하

게 설득하고 현혹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급자가 펼치는 판매 전략에 이끌려 환각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갖가지 빛깔과 음향과 향기, 행운의 약속과 연출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공급자의 판매 전략 때문에 구매욕을 통제할 수 없었다거나, 판매 전략에 말려들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구매자들에게서 환각 상태와 같은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의 브레이크를 약간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의 엔진을 한껏 돌리면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일수록 자본과 지식과 노동력의 더 많은 부분을 오로지 물건을 탐나도록 만드는 데 쓴다. 상품의 세계에서 소비자의 명백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목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물건에 대한 욕구를 일깨운 다음 소비자가 평생 그 욕구를 위해 지출하도록 만든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욕구를 일깨우는 것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충족시킬 경우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는 욕구조차 만들어진다.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

++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 ++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개 있다.

빠리바게뜨, 엠마, 김창근베이커리, 신라당, 뚜레쥬르 ...

빠리바게뜨에서는 쿠폰을 주고, 엠마는 간판이 크고

김창근베이커리는 유통기한 다 된 빵을 덩으로 준다.

신라당은 오래 돼서, 뚜레쥬르는 친절이 지나쳐서

그래서

나는 빠리바게뜨에 가고, 나도 모르게 엠마에도 간다

미장원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치면

김창근베이커리가 나온다

내가 어렸을 땐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신라당을 가고 무심코 뚜레쥬르도 가게 된다

밥먹기 싫어서 빵을 사고

애들한테도 간단하게 빵 먹어라 한다

우리 동네엔 교회가 여섯이다

형님은 고3 딸 때문에 새벽교회를 다니고

윤희엄마는 병들어 복음교회를 가고

은영이는 성가대 지휘자라서 주말엔 없다

넌 월 믿고 교회에 안 가냐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며 내 귀에 테이프를 꽂아 놓는다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교회가 여섯 미장원이 일곱이다

사람들은 똬뚱이 걷고

누구나 다 파마를 염색을 하고

상가 입구에선 영생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기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 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렇다

살 수밖에 없다

【논제】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40점)

논제분석	
what	how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혀라
- 【제시문 다】를	해설하라
고려사항(option)	
- 【제시문 나】의 논지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라.	
- 400± 50자로 해설하라.	

원리 02 | 논제에 맞춰 논술문의 내용과 단락을 구성한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답안에 써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안의 단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성균관대의 2009학년도 모의논술 문항으로 요약형 논제이다. 요약형 논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분석력과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요약 문제는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하지만, 답안 작성에 오류가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이 평소에 ‘요약하라’를 ‘줄거리를 정리하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논술 문제의 유의 사항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 논지, 논거’를 찾아서 자신의 어휘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주제, 논지, 논거’를 찾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용어로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이런 논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논제는 형벌의 의의와 목적이 응징을 위한 것인지 예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는 4개의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내용 즉, 논지를 요약하라는 논제이다. 4개의 제시문은 각각 2개씩 입장이 대비되며, 이중 2개의 제시문은 각 입장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연관되고, 나머지 2개는 그것들의 구체적 현상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형벌의 의의 또는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들을 원리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제시문 3】과 【제시문 4】에서는 구체적인 형벌인 태형과 사형을 언급하면서 그 입장들을 암시 혹은 명시하고 있다. 【제시문 1】은 형벌의 의의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응분의 대가를 보상함)에 있다는 원리적 입장이다. 【제시문 2】는 형벌의 목적이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는 원리적 입장이다. 【제시문 3】은 가혹한 형벌로서 태형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응징에 불과할 뿐, 새로운 폭력을 낳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시문 2】와 같이 예방주의 입장에 속한다. 【제시문 4】는 형벌로서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그 제도가 인명의 살상이라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 방식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1】과 같이 응보주의 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약을 하는데 있어서 제시문의 주요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발췌하기 보다는 각 입장을 대변하는 키워드(정의 실현, 권리 침해, 자유 보장, 보복, 생명)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논지를 기술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원리와 사례라는 관계로 제시문들을 상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제 분석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답안이 단락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제는 두 입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락은 최소 2단락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네 제시문의 공통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언급해야 한다. 이어서 상이한 입장에 대한 제시문의 분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류된 제시문들의 연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입장에 대한 논지를 요약하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통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 제시문 분류까지 포함시키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각 입장에 대한

논지 요약으로 구성하면 무난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1]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①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 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 지어대!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의 목적은 모든 시민 상호간의 자유보장,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권리 침해는 시민 공동체의 본질적 목적과 모순되며, 그 때문에 국가 내에서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그 목적에 따른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임무는 그러한 침해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데 있다. <중략>

국가의 인간의 그러한 욕구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며, 그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자신의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불쾌나 고통으로부터는 달아나려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쾌락을 거부하며, 그 큰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약한 불쾌는 감수한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불쾌보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한다면, 범법 행위는 자질러지지 않을 것이다.

① 정언명령 : 무조건적 명령

[3] 영국의 경우, 특별히 가증스럽다고 여겨지는 범죄가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는 태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오는 소득으로 살아가거나 여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태형을 명하는 판사들은 판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뚜렷한 만족감을 과시한다. 그들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본능의 배출일 뿐이다. 최근에 런던 《타임스 The Times》지에 한 성직자가 보내온 편지가 실렸는데,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교도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몹시 유감스러워하는 내용이었다. 이 훌륭한 기독교 목사는 자신이 ‘피에 굶주렸거나 특별히 앙심이 심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공언한 다음 이렇게 주장한다. “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자기행위의 결과를 철저히 감수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가혹한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범죄를 막는 것이 목적이려면 보다 과학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모든 폭력과 잔인성은 그 답례로 다시 폭력과 잔인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직접 보복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형태로 말이다. 맹목적인 분노 상태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바람직하게 다룰 수 없다. 육체적 형벌을 지지하는 모든 주장들이 과학적 이해가 아니라 분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하면 그런 야만적인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들이 앓아간 것은 피해자의 목숨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탁월한 과학자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천부적인 예술가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위대한 정치인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어쨌든 누군가는 될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인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 가능성을 빼앗긴 것이다. 피해자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빼앗긴 것은 바로 삶이다. 피해자만이 삶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유족들은 그날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회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의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또한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어디 그뿐이라. 사회는 어떤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함부로 다니지도 못한다. 사회 전체에 평화도 믿음도 자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이 땅에서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세 끼 밥을 먹고 잠을 잘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또 언

젠가는 그들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우리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지 않고서 그들을 기억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을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이 자신의 생명 말고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 죽었으니 죽어야 하고, 죽어야 하니 죽이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닐까.

[논제]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논제분석	
what	how
- 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
-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고려사항(option)	
-	

원리 03 논거는 제시문에서 찾아야 한다.

주로 단일 논제로 구성된 고전논술에서는 1,500자 내외의 장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지식이 글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논제로 구성된 통합논술은 600자 내외의 단문으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발휘할 만큼 여백이 충분하지 않다. 물론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거나 논술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추는 것이 논술문 작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통합논술은 독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논거로 활용하면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오히려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내용은 2009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문항이다. 제시문 속의 내용이 논거로 구성되었음을 예시 답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제는 단일 문장으로 논제를 기술하였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기존의 반상회와 사이버 반상회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선택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문 다】 혹은 【제시문 라】에 있는 논거 3개를 활용하면서 논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에서 어느 형식의 반상회가 공동체의식 고취에 유리한지에 대한 논거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논제에서의

요구 조건(제시문에서 논거를 이용하여야 하고, 3개 이상의 논거를 활용하여야 하는 조건)을 준수하면서 주장과 논거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제] 공동체의식 고취에 기존의 반사회와 (라)의 사이버 반사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논술하되, 반드시 (다) 혹은 (라)에 있는 논거 3개를 이용하시오. (50점, 900±90자)

논제분석	
what	how
-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존의 반사회와 사이버 반사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논술하라.

고려사항(option)

- (다) 혹은 (라)에 있는 논거 세 개를 이용하여 논술하라.
- 900자± 90자로 답하라.

[가] 사람이 말할 줄 몰랐다면, 사람은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만든 일을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하고 들음으로써 남의 경험을 그대로 제 경험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말은 그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듣지 못한다. 또,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 들은 말을 완전하게 받아서 오랫동안 지니고 있지를 못한다. 이와 같은 말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람은 글자라는 것을 발명하여 말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을 그림과 글자로 기록함으로써, 말의 뜻은 더 먼 곳의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훨씬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알려질 수가 있게 되었다. 말을 글자로 기록한 것이 글이요, 글을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것이 책인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말과 글이 사람의 정신과 정신이 오고 가는 다리이듯이, 책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책이 놓는 다리는 말과 글보다 더 넓게 퍼지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 만일 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책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 체험하고 발명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밤낮 남이 이미 지나간 뒤를 밟아서 조금씩 나아가다가 죽고 말 것이 아닌가? 또, 그 조금 얻은 지식조차 그 사람 당대에만 끝나고 마는 까닭에, 인류 문화는 도저히 오늘날 같은 높은 곳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남의 경험을 제 경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이 있기에 사람들은 항상 먼저 간 사람이 도달한 곳에서부터 자기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옛사람

이 쌓아 놓은 탑 위에 새 사람이 탑 한 층을 더 쌓는 셈이요, 옛사람이 들고 온 횃불을 새 사람이 받아 들고 뛰는 격이란 말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찬란한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

[나] 최초의 인류들은 간단한 몸짓이나 눈짓으로 서로 의사를 교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언어는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의사를 교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리였다. 이 단계의 소리는 아직 자음과 모음의 분절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겠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맞는 의사전달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소리는 점차 규칙성을 획득하면서 한 언어공동체의 말로 정형화된다.

이처럼 소리와 말은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소리쳐 불러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 한 개인의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물론 소리는 허공에 외치고 나면, 곧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소리는 저장성이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즉각성,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곧 사라져버리는 소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그림(이미지)이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동물 벽화는 허공에 흩어져버리고 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 경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고 영속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동굴에 그려진 그림들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적 과정, 의식, 그리고 반복적인 신화와 설화를 담으면서 건축·회화·조각·음악·무용·문학 등의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발전은 좀 더 추상화된 기호인 문자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이제 시간의 일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록의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의사소통 수단은 신체언어에서 소리와 말의 단계로, 그리고 그림과 문자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이 이처럼 단선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소리, 말, 그림, 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심지어는 글보다는 그림을, 그림보다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채팅은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말에 가깝고, 이모티콘(emoji)과 같은 보조 이미지 활용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감성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다] 1997년에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의 반수의 응답자들은 인터넷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대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메일이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직장 내 관계를 심하게 훼손시킨다고 답하였다.

문제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의 산물로 생각하

지만 그것은 신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 몸의 움직임, 손 제스처 등과 같이 말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마음이 존재할지라도 몸은 사라져 버린다. 메시지가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개성이나 당시의 정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왜 메시지가 왔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추측할 따름이다. 본질적으로 상호간의 신뢰가 성립하기 쉽지 않는 등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된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상호간에 오해나 혼란, 그리고 상처를 더 많이 초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화와 비교해 봐도 인터넷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드러내려고 하든 숨기려고 하든 말소리의 억양과 톤이 메시지 내용 이외의 풍부한 정보를 송신자에게 전달한다. 인터넷에서는 수신자가 어휘나 문체 등을 자유자재로 선택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상을 조작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모티콘조차도 인간의 목소리나 얼굴에 비하면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정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인간의 기억력도 시각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와 청각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해도 중요한 책의 글자들이 어떤 활자체로 인쇄되어 있었던가를 기억하기란 어렵다.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실제처럼 생활하지만 막상 지역공동체가 현실로 겪고 있는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프라인 모임은 갖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경우에조차도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오히려 더 두드러진 것 같다. 한 예로 비즈니스계의 사람들은, 화상 회의용 전화나 비디오 연결을 통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여전히 지구의 반 바퀴를 날아가서 직접 상담을 벌이거나 회의에 참석하곤 한다. 가족 성원들도 실시간 디지털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가상 재회를 하거나 명절에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이 웬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즐기는 것이 주는 따스함이나 친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느낀다. 이처럼 직접적인 만남을 선호하는 현상 혹은 그런 감성적 태도를 어떤 학자들은 ‘근접성 강박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라] 어느새 아파트가 우리의 중심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도 과거 단독주택이 지배적이던 시절에 비해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가져다준 아파트 생활 이면에는 주민 간의 대화 단절과 개인주의의 팽배라는 역효과가 도사리고 있다. 가까운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이러한 폐단은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래 전부터 정례화된 주민회의인 반상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아파트 반상회는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다가 지역과 이웃 주민들에 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몇몇 주도적 인사들에 의해 다분히 형식적으로 소집,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주민 공동의 중요 관심사와 관련해서도 사후 의견이 분분하여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삭막한 현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 반갑다. 반상회^①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 운영하고 있는 OO동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방의 한 중소 도시에 위치한 이곳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새로 이주해 온 까닭에 자연 부락과 같은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의 60% 이상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20~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반상회 개최가 극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OO동에서는 지방자치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 그들은 먼저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반상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히 주민 대다수가 신규 전입한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방식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아파트의 인터넷망을 활용한 카페를 개설하고 공동관심사 위주의 게시판 운영 및 정부 자료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부 시책 및 공지사항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나기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화합의 장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장 선거, 시·구 의원 보궐 선거 등과 같은 공공 현안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되고,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가로등과 택시승강장 설치문제, 안전시설 관리 점검 등의 공동 관심사도 접수·처리할 수 있었다. 또 사이버 카페를 통한 활발한 주민 토론과 합의 도출은 정부사업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했으며, 각 단지의 일정을 미리 사이버 공간에서 조율함으로써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서먹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갈등까지 방지할 수 있었다. OO동 아파트 단지들은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어 인터넷 취약 계층인 노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반상회카페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① 반상회란 정부의 공시사항 전달, 주민의 의견 수렴, 이웃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서, 최하 행정조직인 반 단위로 운영된다.

| 논거 정리 1 |

 기존의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유리하다.

- 기존의 반사회는 몸과 몸이 직접 만나는 방식의 만남이므로 친밀감 형성에 유리하다.(↔ 다 :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이 웬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즐기는 것이 주는 따스함이나 친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느낀다.)
- 기존의 반사회에서는 신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해나 혼란의 여지가 적다.(↔ 다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상호간에 오해나 혼란, 그리고 상처를 더 많이 초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 기존의 반사회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이거나 각자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일이 적다.(← 다 : 공격적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메일이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직장 내 관계를 심하게 훼손시킨다고 답하였다.)
- 사이버 반사회는 젊은 층에게만 익숙한 데 반해 기존의 반사회는 인터넷 사용에 서투른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다.(↔ 라 : 주민 대다수가 신규 진입한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버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유리하다.

- 사이버 반사회는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므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라 : 아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반사회 개최가 극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화합의 장도 마련할 수 있었다.)
- 사이버 반사회는 얼굴을 직접 대하는 만남이 아니므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덜 서먹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라 :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주도적 인사들에 의해 다분히 형식적으로 소집, 진행된 경우가 태반이다. /사후 의견이 분분하여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사이버 반사회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므로 정보 전달 및 축적, 토론과 협의에 유리하다.(↔ 라 : 지역과 이웃 주민들에 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몇몇 주도적 인사들에 의해 다분히 형식적으로 소집,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다./각 단지의 일정을 미리 사이버 공간에서 조율함으로써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서먹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갈등까지 방지할 수 있었다.)
- 사이버 반사회는 늘 열려있으므로 공동의 문제에 대해 미리 조율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라 : 공동관심사 위주의 게시판 운영 및 정부 자료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부 시책 및 공지사항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나기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화합의 장도 마련할 수 있었다.)

| 논거 정리 2 |

 기존의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유리하다.

기존의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얼핏 보면 사이버 반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 반사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 첫째, 사이버 공간을 많이 이용할수록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는 줄어든다. 사이버 반사회가 활성화될수록 이웃 간에 얼굴도 모르고 지낼 가능성은 더 커지는 셈이다. 이는 사이버 반사회가 기존의 지역공동체에서 생겼던 문제, 즉 서로 간의 대화 단절과 개인주의 팽배라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둘째,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견을 나누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직접 만났을 때보다 덜 풍부하다.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 몸짓 등 신체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상호간에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 셋째, 사이버 상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면 동네 반사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극단적인 충돌 양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사이버의 세계는 직접적인 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나 거절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익명성이라는 어둠에 숨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매도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다툼과 경쟁의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는 동네의 중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도 아니며 이웃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저 편하게 만나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방식의 만남이어야 친밀감과 신뢰가 쌓이고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유리하다.

나는 사이버 반사회가 공동체 의식 고취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 첫째, 반사회의 성립과 진행에 필수적인 출석률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기존 반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 근무하는 사람들라면 반사회 시간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이버 반사회는 직장에서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까지 반사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

□ 둘째, 사이버 반사회는 서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느 누구라도 처음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을 때, 서로 이미 친해진 이웃사람들 사이에 끼어 반상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반상회를 한다면 아직 친숙해지지 못한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부담 없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사이버 반상회는 기존의 반상회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반상회는 이웃들 간의 가벼운 대화나 잡담으로 흐를 공산도 크다. 반면 사이버 반상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자를 사용하면 즉흥적인 말보다는 훨씬 내용이 알차고 책임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흔히 한자리에 모여 같이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공동체의식은 형성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제 확인

다음은 2008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에 나온 논술시험의 일부이다.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첫 번째 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시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분류→설명」이다. 【제시문 가】~【제시문 마】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인식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 그리고 【제시문 마】는 인식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분류한 이유도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양상에 의거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논제에 맞춰 서술 방향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제시문 가】~【제시문 마】의 내용을 적절한 논거로 활용하면 더욱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다.

[논제] 제시문에 나타난 객관적 인식에 대한 견해를 기준으로 【제시문 가】~【제시문 마】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각 제시문을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흥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구별하기 좋게 이름을 붙인다면, 첫째는 종족의 우상이고, 둘째는 동굴의 우상이며, 셋째는 시장의 우상이고, 넷째는 극장의 우상이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확고하게 물리치고 폐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성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세간의 속설과 고정관념을 일소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 미신이나 기만, 오류나 혼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것이다.

[나]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위에 부딪혀, 다투는 듯 거세게 흐른다. 놀란 듯한 파도, 성난 듯한 물결, 애원(哀怨)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치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향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쳐부술 듯한 기세가 있다. 전차(戰車) 만 대, 전기(戰騎) 만 필, 전포(戰砲) 만 문, 전고(戰鼓) 만 개로도, 무너져 덮쳐 내리는 듯한 소리를 충분히 형용(形容)하지 못할 것이다. 모래밭에는 거대한 돌들이 우뚝우뚝 들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흡사 물귀신들이 다

투어 나와 사람을 업신여겨 놀리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강물이 그렇게 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강물 소리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마음이 물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귀가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다] 나는 사서(史書)를 읽을 때마다 늘 의심이 생긴다. 선(善)한 것은 지나치게 선하고, 악(惡)한 것은 지나치게 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선징악의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치우치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 선한 자는 어찌 저다지도 선하며 악한 자는 어찌 저다지도 악할까 하는 의심이 든다. 당시의 사람들이 도덕적 시비(是非)에 현혹되어 역사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사서를 읽을 때 도덕적 시비에 현혹되면 사실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라] 역사가는 한 개인이다.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회의 대변인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역사의 과정을 ‘움직이는 행렬’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유는 좋다. 그렇지만 역사가는 외따로 떨어진 암벽 위에서 사방을 굽어보는 독수리나 사열대 위에서 행렬을 내려다보는 중요 인물이 아니다. 역사가도 행렬의 한 부분에 끼여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또 하나의 보잘 것 없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행렬이 휘어져서 때로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때로는 거꾸로 되돌아오고 함에 따라 이 행렬에서 다른 부분들의 상대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1세기 전의 증조부보다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중세에 더 가깝다고 말하거나, 또는 단테의 시대보다는 케사르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도 이 행렬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전망, 새로운 시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역사가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지금 역사가가 속해 있는 행렬의 지점이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을 결정한다.

[마] 소위 ‘학문의 역사’라는 것과 ‘지식의 계보학’을 구분할 수 있다. 학문의 역사가 허구에 대한 진리의 승리 과정을 기술하는 데 비해, 지식의 계보학은 담론(지식)과 권력의 상호관계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의 계보학을 18세기에 적용해 보면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기본 관점을 해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9세기와 20세기에도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적 진보로 여겨졌던 것, 즉 무지에 대한 지식의 투쟁, 환상에 대한 이성의 투쟁, 편견에 대한 경험의 투쟁, 오류에 대한 이성의 투쟁이라는 기본 관점을 해체시켜야만 했다.

지식의 계보학은 어둠을 해쳐가는 대장정으로 묘사되고 상징되던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야만 했으며, 낮과 밤, 지식과 무지 등의 투쟁 대신에 매우 다른 어떤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그 시기에는 거대하고 수많은 투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지식들 상호 간의 거대하고 무수한 투쟁이었다. 지식들은 각기 상이한 형태, 서로 적대적인 그 주창자들, 그리고 그것들에 내재하는 권력 효과들 때문에 서로 투쟁을 벌였다. 지식들이 대립하는 배후에는 정치적·경제적인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음은 2008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모집에 나온 논술시험의 일부이다. 네 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제 1]은 답안의 분량이 300~400자이기 때문에 논제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즉 「비교·설명→설명」의 방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제시문 가】에 근거한 비교·설명을 정리하면 ‘인위선택’은 인간의 이해(利害)에 맞게 사육하거나 재배할 수 있도록 유전적 특성을 재조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무사의 얼굴을 닮은 ‘헤이게 게’의 사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연선택’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종(種)의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안정된 생물계를 만든다. 【제시문 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선택’은 ‘현재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자연계’라는 설명을 통하여 자연계 전체에 ‘헤이게 게’에서와 같은 ‘인위선택’이 개입 또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 사람들의 관념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는 것에 적응하여 자연계도 그렇게 변화해 왔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논제 2]는 답안의 분량이 511~600자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서로 다른 인생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진술하고 후반부에는 배경 또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즉 「설명→논술」의 방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제시문 나】와 [다]의 차이를 정리하면 ‘허무주의’는 진화론을 포함한 과학적 사실을 신앙으로까지 받아들여 테러와 파괴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반해 니체의 ‘초인사상’은 진화를 통하여 확인된 과학적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부단한 자기초월의 의지를 통하여 인간만의 특징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초래된 배경 또는 이유는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 질문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논제1]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인위선택’과 ‘자연선택’의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제시문 [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논제2] 제시문 [나]와 [다]는 진화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초래된 배경 또는 이유에 대해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가] 1185년 4월 24일, 일본의 내해인 세도나йка이의 단노우라에서 헤이게라는 무사 일족과 겐지라는 무사 일족 사이에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다. (중략) 헤이게의 함선들은 모조리 격멸되고 겨우 43명의 아낙네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이들은 전쟁터 가까운 곳에서 어부들에게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헤이게 일족은 거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러나 당시 아낙네들과 어부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은 전쟁을 기리는 기념제를 시작했다. (중략) 그들 자손들은 단노우라 해전 뒤에 일어난 일들을 재현한 연극을 보면서 무사의 군단이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헤이게의 무사들은 게로 변해 지금도 세도나йка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어부들은 말한다. 그곳에는 등판에 아랫한 무늬가 있는 게가 있으며 그 무늬는 무사의 얼굴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 게가 그물에 걸리면 어부들은 먹지 않는다. 단노우라의 비극적인 싸움을 생각하고는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 전설은 재미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사의 얼굴이 게의 등판에 새겨지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게의 등판 무늬는 유전(heredity)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경우처럼 바다 게에도 여러 가지 유전 계통이 있다. 게의 먼 조상 중에 등판 무늬가 사람의 얼굴과 약간 닮은 것이 있다고 치자. 단노우라의 해전 이전에도 어부들은 그러한 게를 먹기를 주저하거나 메스꺼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게를 바다에 돌려보내 줌으로써 게의 진화에 개입했다. 만약 게의 등판 무늬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얼굴과 닮지 않았다면 그 게는 사람에게 먹혀 버려 자손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등판 무늬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얼굴을 닮았으면 그 게는 바다로 되돌려지므로 자손의 수효는 점점 불어난다. 여러 세대를 경과하는 동안 무사의 얼굴과 가장 많이 닮은 게만이 선택적으로 생존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의 얼굴, 무섭게 찌푸린 무사의 얼굴을 닮은 게가 생겨났다. 선택은 외부에서 주어졌다. 무사를 닮으면 닮을수록 생존할 가능성은 컸다. 그 결과 무사의 얼굴을 닮은 게가 많아진 셈이다. 이 과정을 인위선택(artificial selection)이라 부른다. (중략)

우리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낫익은 농장, 가축, 과일, 나무, 채소 등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그들 중 다수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중략) 식물이나 동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



드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자연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작용을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중략) 인위선택에 의한 변화가 단 기간에 수행되었다면 수십억 년에 걸쳐서 계속 되어온 자연선택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현재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자연계이다.

— 칼 세이건, 『코스모스』

[나] 르네상스 이래로 진행되어온 인간 이성과 물질적 세계에 대한 중시는 결국 19세기의 실증주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기초와 도덕과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통적인 사상, 이론, 진리, 지식, 규범 등의 가치를 일체 부정하는 것을 허무주의라고 한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야코비인데, 러시아 문학가 나데즈딘은 허무주의를 회의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했고, 모든 도덕원리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을 허무주의라 하여 혁명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투르게네프는 소설《아버지와 아들》(1862년)에서 허무주의자 바자로프를 통해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

허무주의는 근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탐미주의를 부정하는 철학이었으며 공리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를 옹호한 반면 사회과학과 고전적 철학체계는 완전히 거부했다. 허무주의는 실증주의와 유물론의 초기 형태이자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국가, 교회, 가족 등이 행사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했다. 허무주의의 신념은 오직 과학적 진리만을 토대로 했으며, 따라서 과학이 사회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허무주의자는 모든 악은 무지라는 유일한 근원에서 생겨나며, 과학만이 그 무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허무주의자들은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찰스 다윈, 헨리 버클,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의 결합이라는 이원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권과의 격렬한 싸움에 돌입했다. 또한 신권(神權)에 관한 교설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세속의 온갖 권위들과도 충돌하게 되었다.

모든 사회적 속박과 가족의 권위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는데, 이러한 주제를 훌륭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투르게네프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바자로프와 20세기 초 레오니드 안드레예프가 쓴 희곡《사바》(1906

년의 주인공 사바를 비교해 보면, 허무주의 철학이 과학에 대한 신앙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테러와 파괴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니체의 모든 저술은 두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다. 하나는 피안(彼岸)에 희망을 두는 형이상학이나 신체적 본능 및 감성을 경시하는 도덕을 이념들의 이면을 파헤쳐서 그 위선적·허구적 요소들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허무주의와의 투쟁과 그 극복이다. 니체는 자신의 관점을 초인과 권력의지, 영원회귀의 사상과 운명애의 개념을 가지고 이론화 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자, 자기를 부정하고 넘어서는 것을 통하여 보다 나은 자기를 창조하는 자이다. 또한 권력에의 의지란 주인이 되려는 의지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영원회귀는 끊임없는 자기 초극의 투쟁을 계속하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의 투쟁 법칙이고 초인의 투쟁 법칙이다. 운명애는 영원한 회귀를 나의 영원한 운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는 그것이 아무리 역겹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나의 삶의 영원한 회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끝없이 반복하여 자기 초극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니체의 발언 배후에 있는 것은 인간과 짐승 간의 차이를 말소해버리는 결과에 귀착하게 된 다윈의 진화론과 과학적 인간학에 대한 항변과 도전의 선포이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간은 벌레, 짐승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머나먼 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아직도 내부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벌레이고 원숭이로 남아 있다. 하지만 니체의 초인사상은 인간이 벌레나 짐승과는 달리 부단한 자기초월의 주체(즉 '초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본질이 자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니체는 인간의 자유가 이성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와 결단의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사고능력에 의하여 동물과는 다른 존재론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주지주의 전통이 가지는 이성적 인간학의 한계도 넘어선다.

결국 니체의 초인·권력에의 의지·영원회귀·운명애 사상은 사실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생의지', 다시 말해 살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출 연습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논제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1. 2008학년도 고려대 정시 논술고사(논제 3)

[논제1] 【제시문 4】의 <표 2>에서 유형 I 과 유형 IV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두 유형 간의 차이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불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1] 소규모의 대면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는 게마인샤프트 또는 기계적 연대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연대는 흔히 동일한 부족, 동일한 계급 혹은 동일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약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는 동질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배타적이면서, 두터운 신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구성원들에게 가할 수 있다. 고전적인 사례로는 부족사회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농촌이나 외딴섬에서 이와 유사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

두터운 신뢰는 소규모 신앙 공동체, 소수민족 공동체, 교회, 계토와 같은 독립적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폐쇄적 공동체는 안으로는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지만 공동체 밖의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볼 때, 두터운 신뢰는 편부모 가정 모임, 피학대 아내 모임, 장애자 모임과 같은 소집단 내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발적 대안 공동체와 신사회운동 조직 또한 약한 형태이긴 하지만 두터운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

일차적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두터운 신뢰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포함하는 단순한 형태의 일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적 참여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마을 회의나 소규모의 대안 공동체 등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차적 민주주의는 현대 국가의 전국적 정치 차원에서는 작동될 수 없다.

현대사회는 '얇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얇은 신뢰는 정해진 형태를 갖지 않고 느슨한 이차적 관계로 형성된 게젤샤프트 또는 유기적 연대와 짝지어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중첩되고 맞물려 있는 자발적 결사의 연결망이다. 얇은 신뢰는 약한 연대의 산물로서 현대의 대규모 사회가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토크빌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식 조직 내에서의 상호 작용은 시민들 속에서 민주적 규범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 조직을 통해 시민들은 신뢰, 절제, 타협,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덕목을 교육받으며,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의 기술을 훈련받는다. 이러한 현상을 내부효과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따르는 외부효과도 존재한다. 중첩되는 다수의 집단들은 전체 사회의 내부 분파들을 연결해 주는 교차적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에 다원적인 경쟁을 유발한다.

개인적 차원의 두터운 신뢰와 비개인적 차원의 얇은 신뢰가 구분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상적 신뢰'와 그에 기초한 '상상적', '공감적' 혹은 '성찰적' 공동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뢰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형태의 신뢰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의 증대된 규모, 비개인적인 특성, 복잡성, 파편화 그리고 빠른 변화로 인해서 개인적 또는 비개인적 형태의 신뢰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추상적 신뢰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사회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추상적 신뢰는 일차적 사회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구축되는 것도 아니며, 공식적 조직의 이차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구축되는 것도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추상적 신뢰는 교육과 대중매체라는 매우 중요한 제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은 시간, 장소, 명칭, 사건, 개념, 준거 등과 같은 일련의 공통된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도와준다. 학교는 또 협동 학습 과제, 단체경기, 연극 및 음악 활동 등을 통해서 협력의 기술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뢰, 공정, 평등, 보편주의, 공동의 선 등의 추상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신뢰 수준과 단체 가입률이 높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중매체 역시 추상적 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정치적 지식, 능력, 관심, 소양, 행동의 수준을 향상시켜 사람들을 통합하고 동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추상적 신뢰가 존재함을 보여 주는 좋은 예로 영국의 시민 의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오늘날 혈통과 사회화 및 거주지 등은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문화이다. 조사 응답자의 약 2/3는 포클랜드 사람들과 지브롤터 사람들을 '영국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에서 출생하지도 않았고, 영국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더욱이 영국에서 사회화되지도 않았고, 영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민족 공동체란 상상의 공동체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 사이에 개인 간의 신뢰 수준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신뢰의 확산이 교육, 여행, 대중매체 이용과 같은 사적 행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유럽연합이라는 공동 정부의 우산 아래로 모으는 하향적 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럽연합의 국민들이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을 신뢰하는 능력을 키워 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2]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여 예측 가능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로부터 신뢰는 싹튼다. 신뢰의 중요성은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하여 강조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신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므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경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신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윤리적인 덕목이다. 신뢰의 반대편에 자리한 불신은 그 본질상 악덕이지만 피치 못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불신의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보도에게 어린 자식을 맡기려는 부모는 없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어느 나라든 그 국민의 운명이 가혹한 독재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러한 판단은 어떠한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불신은 해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대체로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 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이 협동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은 협동하지 않는 반면 적자생존의 경쟁과 제로섬적인 갈등에 몰입하게 된다. 사람들은 무익한 협동 대신 기만과 협잡, 배신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다른 모두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다른 모두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울타리 너머로 확산되는 신뢰의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시와 제재와 처벌의 위협이 사람들을 비로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 불신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것처럼 비극적인 균형 상태는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불신 사회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그래서 삶은 매우 암울하고 위태롭게 지탱된다. 팽배한 불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만의 결단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동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

[3]

++ 권토왕 마빈 해글러 ++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는다

판정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심판관은 쉽게 매수되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는다

판정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무신론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벌거벗은 채
승부욕이 강하게 싸운다
이 점은 순교자와 같다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가 뛰는 링은 종종 피범벅이다
이 점은 불란서 혁명과 같다
마빈 해글러는 세계 챔피언이다
하지만 죽음의 왕 앞에선.....
이 점은 불쌍한 투우와 같다

[4] 한국인들의 사회적 신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사람을 고용할 때, 친구나 친척보다는 모르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선택 하겠습니까?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 유형을 (표 1)과 같이 나누고, 이에 따라 신뢰와 소득 간의 관계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사회적 신뢰 유형

		질문 1	
		아니요	예
질문 2	아니요	I (특수화된 신뢰)	II (연고중심 신뢰)
	예	III (능력중심 신뢰)	IV (일반화된 신뢰)

〈표 2〉 한국인의 사회적 신뢰와 소득

소득	Ⅰ (%)	Ⅱ (%)	Ⅲ (%)	Ⅳ (%)	응답자 수(명)
유형					
최하층	16.9	11.2	50.3	21.6	366
하 층	20.1	9.3	44.9	25.7	334
중 층	16.5	9.6	39.3	34.6	260
상 층	13.6	11.3	38.5	36.5	265
최상층	11.7	11.3	46.6	30.4	247
전 체	16.1	10.5	44.4	29.0	1,472

 문제해결

1. 2008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고사(논제 3)

【논제1】 【제시문 라】에 설명된 대표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각각 논의하시오.

【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이다.

*

군자는 중용(中庸)에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反)하여 행동한다.

*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 중(中)에 맞추어 행동함이다. 소인이 중용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함이다.

*

군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한 처지에 있다면 부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다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오랑캐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오랑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환난에 처해 있다면 환난에 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군자는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윗자리에 있을 때에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을 때에는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원망이 없게 될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하게 처신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보여주었듯이, 걸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정치가 흥성하게 될 것이고 걸맞은 사람이 없다면 그 정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릇 정치는 갈대와 같다.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다.

*

중용의 도리는 지극(至極)하도대!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

도가 행하여지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어진 사람은 지나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봉록을 사양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칼날도 밝을 수 있지만, 중용의 도리는 쉽게 실천할 수 없다.

【나】 우리는 이제 대다수의 국가와 사람들에게 최선의 정치질서와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성이나 예외적인 재능과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교육 수준 또는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하는 정치질서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과 대다수의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질서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중략…)

우리가 <윤리학>에서 나온 언명들, 곧 (1) 진실로 행복한 생활이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선의 생활이며, (2) 선이란 중용에 있는 것이라는 언명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최선의 생활방식은 중용에, 즉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용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아가 시민들이 좋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정치질서를 평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질서란 시민들의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는 세 개의 계급이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급

(…중략…)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며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되고자 한다. 다른 어떤 계급보다 중간계급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급에 기초를 두는 국가가 최선의 질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계급이야말로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안전하다.

(…중략…)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고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는다. 또한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반(反)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한다. 포킬리데스(Phokylides)¹의 소망은 옳았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많다.

나도 국가의 중간계급이었으면 좋겠다.

¹ 포킬리데스 : 고대 그리스의 시인

이제까지 논의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진다. 첫째, 최선의 형태를 가진 정치사회는 권력이 중간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이며, 둘째,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국가가 좋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계급의 규모는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급을 합한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계급 중 어느 하나보다는 커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간계급이 어느 한쪽에 가세하여, 서로 적대하는 양 극단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아주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민주주의 또는 단순한 과두정치 심지어 폭군정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중간계급이 지배하는 정치질서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정치질서로부터는 이러한 폭군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작다.

[다] 어떤 사람도 독창성이 인간사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예전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보다 계몽된 행위와 더 나은 취향과 새로운 감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항상 필요하다. 기존의 방법과 관행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시도로 기존의 관습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전체로 볼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소수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고여 썩어 가는 물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만일 세상에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 관행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행해지게 됐는가를 망각하고 마치 소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만약 항상 새로운 독창성을 가지고 신념과 관행이 인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과 관행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비잔틴 제국에서와 같이 문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천재는 극소수이다. 천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천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천재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개성이 강하다. 천재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제한된 몇 가지 유형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천재들이 소심하게 행동하여 강제적인 틀에 적응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억압되는 데 동의한다면, 사회는 그 천재들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들

이 강한 성격을 소유하여 이 굴레를 타파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난폭한 사람', '과묵한 사람'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이아가라 폭포에게 왜 네덜란드 운하처럼 독 사이를 온순하게 흐르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라]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의 분포상태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는 먼저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성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어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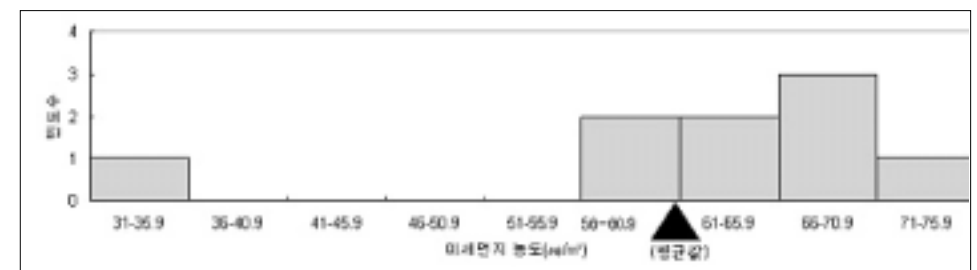
대표값의 종류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평균값'은 모든 관측값을 다 합한 후에 그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눈 값이다. '중앙값'은 모든 관측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최빈값'은 주어진 관측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균형을 유지시키는 무게 중심에 비유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계산한 중앙값이 자료 전체의 속성을 보다 잘 대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빈값, 즉 자료의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대표값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세 가지 대표값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인천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하루 평균값을 아홉 개 구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mu\text{g}/\text{m}^3$ 단위로 측정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하루 평균 $100 \mu\text{g}/\text{m}^3$ 이다.

	강화군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중구
미세먼지($\mu\text{g}/\text{m}^3$)	31	57	59	61	64	67	67	67	72

아홉 개 구역의 평균값은 모든 값들을 더하여 전체 개수(9)로 나눈 것으로 약 $60.6 (\mu\text{g}/\text{m}^3)$ ($\approx [31+57+59+61+64+67+67+67+72]/9$)이다. 중앙값은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므로 $64(\mu\text{g}/\text{m}^3)$ 가 된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관찰된 값이므로 세 번 관찰된 $67(\mu\text{g}/\text{m}^3)$ 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강화군은 다른 구역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다. 이 때문에 무게 중심으로 비유될 수 있는 평균값은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비해 작아진다.



 문제 해결

 1. 2008학년도 서강대 수시 논술고사(문항 3)

[논제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오늘날 인류가 처한 현실을 인간과 언어 사이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네 편의 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서술하라. 그런 다음 그러한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가]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 왔다 /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중략…)

왼쪽과 오른쪽 또는 오른쪽과 왼쪽에 / 눈과 귀와 팔과 다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 우리는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 저울과 바퀴를 만들고 벽을 쌓았다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를 /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중략…)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 온몸을 푸들푸들 떨고 있는 / 도다리의 몸뚱이를 산채로 뜯어먹으며 / 묘하게도 두 눈이 오른쪽에 몰려 붙었다고 웃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 오른쪽과 왼쪽 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 결코 나눌 수 없는 / 도다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 김광규, 「도다리를 먹으며」

[나] 민족마다 선과 악에 대해 각기 고유한 언어를 지니고 있다.

(…중략…)

각 민족은 도덕과 법에 있어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중략…)

차라투스트라는 많은 나라를 보았고 많은 민족을 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민족의 선과 악을 발견하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세상에서 선과 악보다 더 큰 권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처음에 먼저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민족은 살 수 없을 것이다.

한 민족이 자신을 보존하려면 이웃 민족이 하는 대로 가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민족

에게는 선한 것으로 불리는 많은 것들을 저 민족은 몰상식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제 나는 알았다.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악한 것으로 불리지만 저기서는 보랏빛 명어로 치장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웃 민족끼리 서로를 이해한 적은 결코 없었다. 언제나 한 민족의 영혼은 이웃 민족의 광기와 악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다] 세계를 ‘그들’과 ‘우리’라는 양극화된 용어로 보지 않기란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 미국 대외 정책의 고립주의를 강화해 줬던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에는 제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적과 아군이라는 용어로 세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저 곳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늘 ‘저곳에서’ 싸움을 벌이죠. 옛날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은밀하면서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존재들이었다면, 이제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 테러리스트는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신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 갖가지 상이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죠.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언제까지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테러리즘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빈곤과 암이 늘 존재할 것처럼 말입니다.

-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라]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곧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은 어떤 의미에서도 단순히 상상속의 존재에 그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구성 부분을 형성했다. 곧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로서 표현하고 표상한다. 그러한 언설은 제도, 낱말, 학문, 이미지, 주의주장, 나아가 식민지의 관료제도나 식민지적 스타일로써 구성된다.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문제해결

원리 적용

[논제] 【제시문 (가)】~【제시문 (다)】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낸 후, 그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제시문의 사례에 의거해 설명한 뒤 이를 정부 정책에 적용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

[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 업적을 당당하게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당연한 것 같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한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조각품, 위대한 음악 등에는 거장이 있으며 그 거장들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작품의 위대성은 누가 혹은 무엇이 판단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들의 판단이 그 잣대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장소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15세기의 사람들과 20세기의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플로베르의 작품인 『악의 꽃』은 당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정도로 음란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추상화의 대가인 피카소가 17세기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의 그림이 그 시대에 찬사를 받았을 것인가. 이처럼 그 기준의 잣대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의 빛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계몽화된 이성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에 의하여 위대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후대의 계몽화된 이성과 심미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단을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시대도 미래세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실재한다면, 위대성, 탁월성의 잣대가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준이 임의적일 때 한 시대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응분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시대 한 시점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bestseller)보다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켈젠, 『정의란 무엇인가』

[나] 사람들의 '필요'는 사람들의 '선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한 번 마셔보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절규한다고 해서, 빵이나 밥도 아닌, 사치스러운 선호에 속하는 포도주에 대한 열망을 필요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혹은 "일주일에 한번은 꼭 외식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통찰들은 우리가 '필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이나 간주관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논의의 시작일 뿐, 논의의 종결은 아니다. 객관적·간주관적 특성과 주관적·개인적인 특성과의 차이가 늘 선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필요라고 할 경우 사람들은 무엇을 꼽는가. 음식, 의복, 주거를 의미하는 의식주, 또한 그들을 넘어서서 의료, 직업, 여가 등을 꼽을 것이다. 이러한 품목과 재화에는 단순히 인간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 있다. 그러나 품위 있는 삶의 질이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학적 필요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우리는 고통이 즐거움보다 도덕적 호소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숫자의 문제에 초연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최소수혜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최소수혜자보다는 생활형편은 낫지만, 숫자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비교하는데 있어 언제나 전자가 후자보다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물론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1마리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준칙이 함의하는 바에 친숙하다. 그것은 그만큼 고통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도덕적 비대칭성의 원리의 위력을 실감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양이나 숫자가 그 자체로 도덕적 우위를 지니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양(量)들이 모여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이나 숫자의 문제가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공리주의자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또한 비현실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 롤즈, 『사회정의론』

 문제 해결

[논제] 제시문에서 형제인 ‘철호’와 ‘영호’의 삶의 방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들 형제의 현실 인식을 정리해 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시오. (400자 이내)

2

"형님은 절 오해하시고 계세요."
".....?"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양담배를 사서 피우겠어요. 어쩌다 친구들이 사주는 것이니 피우는 거지요. 형님은 또 제가 거의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또 제법 합승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형님은 때때로 이십오환 전차값도 없어서 종로서 근 십리를 집에까지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오시는 것을, 그렇지만 형님이 걸으신다고 해서, 한사코 같이 타고 가자는 친구들의 호의, 아니 그건 호의도 채 못 되는 싱거운 수작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것을 굳이 뿌리치고 저마다 걸어야 할 아무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들이죠. 술, 담배는 사주고 합승은 태워줘도 돈은 안주거든요."
영호는 손끝으로 뱅글뱅글 비벼 돌리는 담뱃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 줘야지. 벌써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지 않니."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달 안으로는 어찌되든 간에 결판을 내구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주란 말이지요?"
"그럼 뭐 별 뽕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
어처구니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다가왔다. 철호는 비루 강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꺾었다.
"용기?" / "네. 용기." /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 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에 허수아비를 무서워 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콩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아랫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 던지고 훌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 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 "너는, 너는……." / "……."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 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옹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악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악하면 악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감짝감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그건 나이롱 뽀뽀 같은 것이죠, 입이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데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짝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이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배갑에서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

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다 탄 콩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중략)

철호는 고개를 푹 떨구어 턱을 가슴에 묻었다. 영호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빨았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루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총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낫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죠,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치료비를 버는 것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을 혹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 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 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걸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줄이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들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총치가 쏘아 부은 불을 싸쥐고 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십 한 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명으로 들여다보고 말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돈 만치만 말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목구멍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가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구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웅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영호는 얼굴을 번쩍 들며 반쯤 끌려놓았던 넥타이를 마저 끌어서 방구석에 픽 던졌다.

- 이범선, '오발탄'에서

 문제 해결

04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 원리 접근
- 기출 확인
- 실전 연습

04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원리 접근



위 삽화는 학급 현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철수와 영수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학급회의의 주제는 소풍 장소 결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학급회의는 학급 구성원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도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급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때의 문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진술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주제다. 주제를 결정한 후에는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관련 제시문을 집필하거나 수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논술시험 출제 과정이 그렇듯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의 논술시험이든 시험지를 받으면 의도적으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기출 확인

1.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문항 2)

【논제1】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사례 (1), (2), (3), (4)를 현대 민주 사회의 다수결 원리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각 사례별로 나누어 설명 하시오. (800자 이내)

【논제2】 논제 1에서 제기된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A시 의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이내)

【가】 (ㄱ)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할 때 합의를 끌어내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토론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비판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리에 따르게 된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수의 의사는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존중될 수 있다.

(ㄴ) 백제에는 호암사(虎岩寺)에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은 다음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가져 와서 열어 보고 이름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한편,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화백에서 만장일치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ㄷ)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 재난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구언교(求言敕)라 하였다. 왕이 구언교를 내리면 전국 각지에서 관원과 백성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응지상소(應之上訴)라 하였다. 왕은 응지상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나】 (1) 甲, 乙, 丙, 丁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주문할 음식의 종류에 대하여

甲, 乙, 丙, 丁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甲이 음식의 종류를 통일하자고 제안하였고, 乙과 丙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丁은 동의하지 않았다. 丁은 냉면을 주문하고 싶었으나, 甲, 乙, 丙의 요구에 따라 모두 비빔밥을 주문하였다.

(2)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원정을 앞두고 큰 풍랑이 일어 출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리하여 신의 뜻을 묻기로 한 결과,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해신(海神)에게 바쳐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졌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보물’을 아가멤논 왕의 딸 이피게니아로 해석하였고, 대다수 왕들은 아킬레우스의 해석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왕들은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3) 甲 마을의 쥐 100마리와 乙 마을의 쥐 30마리가 회의를 열어 마을에 새로 나타난 고양이(야옹이)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쥐들은 만장일치로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누가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다. 甲 마을의 쥐들은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乙 마을의 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甲 마을의 쥐들이 乙 마을의 쥐들에게 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 다음 회의를 열어 찬성 100, 반대 0으로 乙 마을의 쥐 짹짹에게 야옹이 목에 방울을 다는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4)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소수 정당은 그 법률안에 반대하였고, 그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였다. 이에 다수 정당은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통지하지 않은 채 다수 정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수결로 그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다】 정부는 도시 환경 정화를 위해 A시에 폐가전제품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A시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시 의회는 이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40%로 집계되어 이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찬성자들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처리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자들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 이해 및 분석

- 주제 :
- 주제에 대한 견해 :
- 논제에 따른 개요 :

 문제 해결

2. 2009학년도 연세대 논술 모의고사

-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제시문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시오. (60점) (1,500자 내외)
- [문제2] 【제시문 라】의 표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과 관련지어 해석해보시오. (40점) (1,000자 내외)

[가] 개인의 가치판단이 학문적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끊임 없이 혼동이 야기되었으며, 심지어 사실들 간의 간단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과학적 주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중략...]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에 대한 규범적 가치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경험적 학문의 과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혀 무의미하다. 경험적 분석에 근거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문화적 가치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뿐이다.

[...중략...]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세상의 의미에 대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경험적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과 세상만사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판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인생과 세상만사에 대한 보편타당한 견해가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경험적 지식과 가치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적 의무의 이행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다.

[나] 왕건이 궁예의 여러 장수들 중 하나로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大兵)을 맡게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客死)하게 하고 또한 '이신사군(以臣弑君)'의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기울여 궁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죄를 만들어 냈다.

고려의 사관(史官)은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자식인데, 왕은 그의 생일이 5월 5일임을 미워하여 내다 버렸다.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 하였는데 그는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져 있는 헌안왕의 초상화까지 칼로 찼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궁예가 태어난 뒤에 헌안왕이 엄히 명령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궁녀가 누대 위에서 아래로 궁예를 던지니, 아래에서

유모가 받다가 그만 잘못하여 손가락이 그의 한쪽 눈을 찔러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유모가 비밀히 그를 길러냈는데 그가 10여 세가 되어 장난이 심하였다. 이에 그 유모가 울면서 “왕이 너를 버리신 것을 내가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몰래 길렀는데 이제 네가 미친 듯이 멋대로 행동함이 이와같으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나는 다 죽을 것이다.”고 하니, 궁예가 듣고 울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중략...]

만약 사관의 말이 맞는다면, 궁예가 비록 헌안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날 누대 위에서 죽으라고 던진 날부터 이미 부(父)라는 명의(名義)가 끊어진 것이니, 궁예가 헌안왕의 몸에 직접 칼질을 하더라도 시부(殺夫)의 죄가 될 수 없고, 신라왕의 능(陵)과 도읍을 유린하더라도 조상들을 욕보인 죄를 논할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왕의 초상화를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고 한 것이 무슨 큰 죄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고대의 좁은 윤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 헌안왕의 초상화를 칼로 친일과 신라에 대한 불공(不恭) — 만으로도 궁예에게는 죽어도 남을 죄가 있는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지 못할 게 무엇이라. 이리하여 왕건은 살아서 고려의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 태조 문성의 시호를 받았더라도 추호도 부끄러울 게 없게 된 것이니, 이것이 고려의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世達寺)의 일개 결승(乞僧)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귀한 신라 황궁의 왕자를 만든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 작가는 우선 그의 독자들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 진실한 것만을 말하고 보여주기로 애초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삶에 깊이 관계된 것입니다.

[...중략...]

그러면 우리들의 그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행복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더 풍족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다 더 아름다운 삶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소설로써 고발하는 것, 의롭지 못한 일을 증언하는 것,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간섭해 오거나 병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비인간적인 제도와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용기를 모색하는 것, 소위 새로운 영혼의 영토를 획득해 나가고 획득된 영토를 수호해 나가려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학적 노력이 종국에는 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스럽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삶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그의 작품으로 그런 삶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독자가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할 리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깊고 큰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가장 삶다운 삶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옳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살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비인간적인풍습과 제도와 문물과 사고를 통틀어 우리 삶을 ‘억압’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이 그 억누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삶, 본래의 자유롭고 확장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의 질서입니다. 이 자유의 질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삶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 아래 표는 미국의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국가 간 분쟁에 대해 <대량학살 genocide>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신문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타임> 등이다.)

공격국가	피공격국가	사설/칼럼	뉴스기사
세르비아 (1998-99)	코소보	59	118
인도네시아 (1990-99)	동티모르	7	17
터키 (1990-99)	쿠르드	2	8
이라크 (190-99)	쿠르드	51	66
미국 (1990-99)	이라크	1	10

문제 이해 및 분석

■ 주제 :

■ 주제에 대한 견해 :

■ 논제에 따른 개요 :

 문제 해결

실전 연습

1 _ 세계화 시대의 민족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하기는 유럽의 독일을 뺀치는 게 아시아의 한국이다. 외국 의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한국인의 문화적 수준은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 매년 발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간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폐쇄성을 세 계 49개국 중 44위권에 올려놓고, 싱가포르 정치경제연구소의 '외국인들이 느끼는 아시아 각국의 삶의 질 비교' 보고서에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개방성 수준이 베트남에 이어 꼴 짜에서 두 번째이다. 일전 호주 시드니의 국제정책 두뇌집단인 로위연구소가 발표한 국가 별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체 15개국 중에 동티모르에 이어 10위 수준에 머물렀 다. 언젠가 한국의 유엔 대표부 단장에 흑인이 새로 취임해 왔다. 한국정부 대표들과 유엔 대표부 단장을 비롯한 외국 직원들과의 공식모임이 열렸다. 한국의 정부 대표들이 먼저 다 가가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는 대상은 흑인 단장이 아니라 정식 직원도 아닌 백인 인턴 사원이었다. 그 이후로 유엔대표부에는 원칙이 하나 생겼다. '한국에 대표를 파견할 때는 반드시 백인으로 하라.'

[00일보 : '잡종' 이여, 영원하라]

[나]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 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 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 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 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 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교육부) : '허생전']

[다]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구 문화 중심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서구의 문화 상품들이 비서구 국가의 문화들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과 인터넷의 대중화, 위성 통신의 발달 등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는 서구 문화 일색의 획일화 과정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세계 각국의 민족 문화가 공존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명제는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디딤돌) : ‘세계화와 문화적 대응’]

[라]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구적 세계관’ 또는 ‘지구적 관점’이 요청된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중심적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지구적 세계관의 핵심은 ‘지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다. 지구적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간주하며, 인류의 미래 대비 능력을 중시한다.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교육부) : ‘지구적 세계관’]

[문제1] 아래 기사문을 읽고 논지를 파악한 후,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700±50자) * 단, 위 제시문을 논거로 삼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시오.

보 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 00일보 : 유엔, 한국 ‘단일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

[문제2] 위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논술하시오. (700 ±50자)

문제 해결

Blank area for writ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

2_ 모조품 소비현상

[가] 거장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낡은 건물과 가로(街路)도 관광객들을 매료시킨다. 도시 간 디자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통 건물의 개·보수와 유지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카프리섬이나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개성이 남아 있어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 인사동과 북촌을 꼽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래서 선진국 도시들도 과거의 건물과 가로변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마천루의 도시 뉴욕의 경우, 미드타운 등에 대해 5~7층 높이의 건물이 줄지어선 가로변 풍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도심 가로변 풍경의 통일성 유지이다.

보존할 만한 특이한 건물이나 가로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디자인은 창의성이 가장 큰 무기이다. 도시 전체에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한 프랑스 리옹은 '빛의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보행자 도로와 쉽게 길을 찾는 표지판으로 유명한 영국의 브리스톨,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를 재구성한 스웨덴 스톡홀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천국을 만든 브라질库里티바도 전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명품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행정 당국의 정책과 지역 특유의 전통을 지키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빚어낸 성과물이다. 디자인 코리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성공하려면 우리만의 독창성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외국 유명 도시만을 모방하려 한다면 국적 불명의 짝퉁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00일보 : '명품 도시, 짝퉁 도시']

[나] 한 미술 잡지가 국내 최고 경매 기록(45억2000만원·올해 5월 서울옥션)을 세운 박수근 유화 '빨래터'의 진위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어 파문이 예상된다. 1월 1일 창간되는 미술시장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발행인 강병철(주)자음과 모음 대표)는 창간호에 실린 '대한민국 최고가 그림이 짝퉁?'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빨래터'가 짝퉁 의혹을 받고 있다"며 1995년 시공사에서 나온 '박수근 작품집'에 실려 있는 비슷한 이미지의 '빨래터'(개인 소장) 도판을 싣고 두 작품을 비교했다.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이 기사에서 "시공사 '빨래터'의 물줄기 선들은 어두운 바탕색 위에 두터운 마티에르(질감)로 표현했는데, 서울옥션의 '빨래터'는 그냥 그려진 선일 뿐"이라며 의혹의 근거를 제기했다.

[00일보 : '45억짜리 박수근의 「빨래터」가 수상하다']



◀ 올 5월 45억2000만원에 낙찰된 박수근의 '빨래터'(37×72cm·사진 위쪽)와 시공사 도록에 실려 있는 '빨래터'(50.5×111.5cm·사진 아래쪽). / '아트레이드' 제공

[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어떤 재화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한 사람은 자기 신용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비하는 데 윤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물론, 소비하는 데에는 윤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윤리 교과서(교육부) : '소비자 윤리']

[라]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 불변(固定不變)의 신비(神秘)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存在)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 내고 창조(創造)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所産)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後代)에는 버림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評價)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

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新羅)의 향가(鄕歌), 고려(高麗)의 가요(歌謠),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사설시조(僞體詩調), 백자(白磁), 풍속화(風俗畵)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교육부) :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논제] 〈보기〉의 밑줄 친 현상과 관련있는 내용을 찾아 문제상황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오. (주의 : 모든 논 의 과정은 제시문을 활용할 것. 800± 50자)

보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상을 **‘거짓 합치 효과’**라고 부른다. 우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믿는다. 어떤 일을 망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위안을 삼는다.(중략)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헤아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데이빗 마이어스, 『사회 심리학』



문제해결

논술 지도의 원리와 실제 · 인문계

2009년 5월 일 인쇄

2009년 5월 일 발행

발 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 학 전 형 지 원 실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전화 : 02)6393-5254

인쇄처 : (주)금석프린텍

전 화 : 02)498-8600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